

# 高麗後期 象嵌青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김 윤 정\*

- I. 머리말
- II. 麗·元 陶磁 交流의 歷史的 背景
- III. 14세기 高麗와 元의 陶磁 제작 배경
- IV. 象嵌青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造型 요소
- V. 元代 磁器의 영향에 따른 象嵌青磁의 시기별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高麗와 元은 고려가 원에 和平을 청한 원종대(1259-1274) 이후부터 100여 년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關係를 維持하였으며, 고려와 元の 빈번한 文物교류는 고려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고려후기 尙감청자에 元 文化의 影響으로 새로운 器形과 文樣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先學들의 研究에서 지적된 부분이다. 그러나 麗·元 도자 교류의 전체적인 경향이나 고려후기에 元代 磁器의 影響이 尙감청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

\* 용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는 시기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상감청자에 원대 자기의 기형이나 문양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시기마다 변화하는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에서부터 人的·物的 자원의 교류, 도자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상황까지 많은 분야와 관련된다. 고려후기 상감청자에서 口緣外反式 대접, 高足杯, 귀대접 등의 기형과 龍文, 鳳凰文, 魚文, 蓮花唐草文, 돌기문 등의 문양을 통해서 元代 磁器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은 고려와 원의 교류가 시작되는 13세기 후기부터 원과의 관계가 긴밀했던 14세기 전반 경을 거쳐 1368년에 원이 멸망한 이후인 고려말·조선초까지 지속되었다.<sup>1</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麗·元 양국의 외교 정책에 따른 교류 상황과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서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이 전개되는 양상을 세 시기로 편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麗·元 陶磁 交流의 歷史的 背景

高麗와 元은 왕실·관인·민간인 등 여러 계층에서 使行이나 貿易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하였으며, 고려와 원의 도자 교류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각 시기마다 변화하는 두 나라의 교류 관계와 무역 상황은 상감청자에 미친 원대 자기의 영향과 수용 경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麗·元 교류 상황을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3세기 후반은 麗·元 교류의 시작기이며, 14세기 전반은 충선왕대(1308-1313)에 對元 정책이 변화하면서 元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14세기 후반은 정치·경제적으로 원의 예측에서 벗어나지만 원대 문물의 영향이 계속되는 시기이다.

<sup>1</sup>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119-122. 고려청자의 편년을 크게 6명기·발전기·변화기로 보고, 1260년부터 1432년까지의 기간을 변화기로 정의하였다. 변화기에서 1260년에서 1351년까지를 제1단계로, 1352년부터 1432년까지를 제2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편년관을 적용하여 조선초에 제작되는 상감 분청사기를 고려후기 상감청자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상감청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sup>2</sup> 張東翼, 「麗·元 交涉의 諸局面」, 『高麗後期 外交史 研究』(일조각, 1994), pp.133-134.

## 1. 13세기 후반의 麗·元 交流

13세기 후반에 고려와 원의 교류는 왕실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연초나 연말에 元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물을 바치고 이에 대해 元정부에서도 回賜를 하는 것이었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고려정부가 원에 바친 공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고려청자도 원으로 전래되었던 貢品 중에 하나였다.

충렬왕 15년(1289, 至元の 26)에 이미 元의 중서성에서 청사로 된 옹·분·병을 구한다는 구체적인 器種까지 명시한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려청자는 원에 보내지는 주요 공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충렬왕 20년(1294) 4월과 충렬왕 22년(1296) 11월에 元 成宗에게 바친 膳物과 공물의 내역 중에서 胡瓶·銀胡瓶·半鏤銀胡瓶이라는 새로운 器名이 보인다.<sup>4</sup> 중국에서도 江南人들이 元의 皇帝나 正后가 사용하던 寶座를 胡床이라고 칭했다고 하므로,<sup>5</sup> '호병'은 원대 몽고족과 관련된 器皿으로 추정된다. 고려에서 1290년대부터 원대 몽고족과 관련된 그릇이 제작되어서 元으로 가는 貢物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元朝에 貢物로 쓰였던 器皿 중에서 화금자기는 麗·元간 도자교류의 대표적인 품종이었다. 元 世祖(1260-1294)는 조인규에게 자기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 것과 進獻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데,<sup>6</sup> 세조는 이미 自國에서 1271년에 자기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 것을 명하였다.<sup>7</sup> 그러나 1297년인 元 成宗(1295-1307) 재위시에는 다시 金描가 사용된 자기가 進上되고 있어, 磁器 중에서도 화금자기가 선호의 품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sup>3</sup> 『高麗史』卷30 世家 忠烈王 十五年 八月 「戊午, 耽羅安撫使忽都塔兒, 還自元, 中書省, 牒求青砂甕益瓶。」

<sup>4</sup> 『高麗史』卷31 世家 忠烈王 甲午 二十年 四月 「甲午, 皇太子, 卽皇帝位, 是爲成宗, 王與公主, 獻金蓋·銀鏤葵花蓋各一副, 金瓶·金鏤銀尊·壺·湯瓶·酒瓶各一事, 半鏤銀尊·胡瓶各一事, 銀盂八十一事, 銀鍾十八事, 紫羅九匹, 細苧八十六匹, 豹皮十八領, 水獺皮八十一領, 以充庭實, 表賀禮訖, 帝, 命王赴宴, 時, 諸王·駙馬, 畢會, 王坐第七·…; 同書 世家 31 忠烈王 二十二年 十一月 「甲申, 王與公主, 謁帝, 獻方物金瓶·金鍾二事, 鏤銀壺·銀湯瓶各一事, 銀蓋一副, 銀胡瓶·銀大樽各一事, 半鏤銀胡瓶二事, 銀大鍾一事, 銀盂五十事, 虎·豹皮各十三領, 水獺皮七十六領, 紫羅十匹, 白苧布一百匹, 玳瑁 子一十, 遂侍宴于長朝殿, 諸王滿座, 王居第七, 公主之右, 無敢坐者。」

<sup>5</sup> 史衛民, 『元代社會生活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p.176.

<sup>6</sup> 『高麗史』卷105 列傳 卷第18 趙仁規 「…仁規, 嘗獻畫金磁器, 世祖問曰, 畫金, 欲其固耶, 對曰, 但施彩耳, 曰, 其金可復用耶, 對曰, 磁器易破, 金亦隨毀, 寧可復用, 世祖善其對, 命自今, 磁器毋畫金, 勿進獻。」

<sup>7</sup> 『元典章』典章 58 工部 卷 1 造作一 雜造 「…磁器上不用金. 至元八年, 御史臺承尙書省劄付, 欽奉聖旨, 節該今後諸人但係磁器上, 並不得用描金. 生活教省裏, 通行榜文禁斷者欽此。」(劉新園, 『景德鎮의 早期墓葬發見의 磁器と珠山出土의 元·明官窯遺物』, 『皇帝의 磁器-新發見의 景德鎮官窯』(大阪市美術振興協會 외, 1995), p.14 재인용)

<sup>8</sup> 『高麗史』卷31 世家 忠烈王 二十三年 正月 「壬午, 遣郎將黃瑞, 如元, 獻金畫甕器·野雉, 及耽羅牛肉.; 汪慶正, 『景德鎮의 元代瓷器』, 『中國陶瓷全集 11 元(下)』(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9), p.20. 중국 내에서도 磁器에

조인규(1237-1308)가 원 세조에게 화금자기를 진상한 시기는 원 세조 재위년간(1260-1294)의 말년경이나 1289년으로 추정되어 왔다.<sup>9</sup> 그러나 조인규가 원 세조와 화금자기를 논하는 대화의 앞뒤 기록에서, 세조가 조인규의 탁월한 몽고어 실력을 처음 알았다는 점과 대령총관 강수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기를 재고해 볼 수 있다.<sup>10</sup> 원 세조가 조인규를 알게 되는 시기는 조인규가 제국대장공주의 신임을 얻게 되는 1274년 이후부터,<sup>11</sup> 원조에 패와 관직을 받으러 가는 1280년이나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康守衡이 大寧總管으로 재임할 수 있었던 시기는 1278년부터 1284년 사이이다.<sup>13</sup> 그렇다면 조인규가 화금자기를 진상한 시기는 1278년에서 1280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고려사』 기록에서 1278년과 1280년에 충렬왕, 조인규, 강수형이 함께 元朝에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므로 화금자기와 같은 고급 청자가 적어도 1280년경에는 元朝에 바쳐지는 공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원과의 무역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고려는 각종 물품을 중국에 가져가서 원의 화폐인 寶鈔로 바꾸고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였다.<sup>15</sup> 이 때 고려가 원에서 구입한 물품의 종류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서적이나 文廟祭器·악기 등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16</sup> 史燿(1256-1305)라는 인물을 통해서 13세

금을 이용하지 말라는 금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金書磁器는 계속 만들어졌다고 한다.

<sup>9</sup>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203;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137.

<sup>10</sup> 『高麗史』 卷105 列傳 卷第18 趙仁規 「…初國人雖學蒙古語, 未有善數對者, 我使如京, 必令大寧總管康守衡, 引入奏, ……」, 又曰, 高麗人解國語如此, 何必使守衡譯之。」

<sup>11</sup> 閔賢九, 「趙仁規와 그의 家門(상)」, 『震檀學報』 42(1976), pp.20-22. 조인규는 세자 謹(忠烈王)이 1274년에 원 세조의 딸과 혼인하고 왕위에 오른 후에, 원 공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공주의 사속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高麗史』 卷105 列傳 卷第18 趙仁規; 『高麗史節要』 19 忠烈王 3年 12月 참조).

<sup>12</sup> 『高麗史』 卷105 列傳 卷第18 趙仁規 「王上書中書省曰, 陪臣趙仁規, 曉蒙漢語, 譯朝廷詔勅文字, 無有違誤, 予昔侍天庭, 終始隨從, 又事公主, 恪勤朝夕, 請賜牌面, 充王京脫脫禾孫, 兼推考官頭目, 元以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脫脫禾孫, 賜金牌」; 同書 世家 29 忠烈王 6年 12月 「辛卯, 趙仁規·印侯, 還白元, ……」 趙仁規, 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 兼脫脫禾孫, 賜金牌·印信。」

<sup>13</sup> 문헌기록에서 강수형의 관직은 1278년 5월에는 北京同知로, 1284년과 1287년에는 東京總管으로, 1289년에 贊成事를 끝으로 沒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강수형이 대령총관으로 재임할 수 있는 시기는 1278년 5월 이후부터 1284년 5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高麗史』 世家 28 忠烈王 4年 5월 丁亥條; 同書 世家 29 忠烈王 10年 5월 己未條; 同書 世家 30 忠烈王 13年 7월 壬寅條; 同書 忠烈王 15年 1月 庚子條 참조).

<sup>14</sup> 『高麗史』 世家 28 忠烈王 4年 7월 「乙酉, 王在元, 哈伯平章, 謂康守衡·趙仁規曰…」; 同書 世家 29 忠烈王 6年 9月 己酉條 참조.

<sup>15</sup> 張東翼, 「麗·元 交渉의 諸局面」, 앞의 책(1994), pp.141-148.

<sup>16</sup> 『高麗史』 卷 32 世家 忠烈王 二十九年 閏五月 「戊寅, 國學學正文鼎, 以宣聖十哲像, 及文廟祭器, 還白元」; 同

기 후반경의 對元 貿易이 왕실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원에서는 무역 거래시에 관세와 市舶稅 등을 적용하고 있었다.<sup>17</sup> 사요의 신도비문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고려왕이 파견한 사신에게 관세인 抽分을 취하려고 하자 사요가 추분을 면제하고 시박세만을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8</sup> 주목되는 점은 사요의 집안이 고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요는 원조의 재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던 史天澤(1202-1275)의 손자였다.<sup>19</sup> 사천택이 고려인 李伯祐와 인연을 맺으면서, 사씨 집안은 고려인 이백우 집안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20</sup> 중국 河北 石家庄市 后太保 史天澤(1202-1275)의 묘에서는 <청자상감모란운학문매병>이 출토되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러므로 사요는 원과 고려의 정치적인 긴밀성을 내세웠지만 고려에 대한 사요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13세기 후반경 麗·元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요의 기록과 같은 해인 충렬왕 21년(1295)에 충렬왕이 中郎將 宋瑛을 시켜 바다 건너 산동의 益都府에 麻布 일만사천필을 가져가서 楮幣를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22</sup>

이렇듯 13세기 후기에 고려왕실의 對元 무역은 왕실이나 관료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

書 列傳18 諸臣 安珣 「…珣又以餘貲，付博士金文鼎等，送中原，畫先聖及七十子像，并求祭器·樂器·六經·諸子史以來…」；同書 卷 34 世家 忠肅王 元年 六月條 「…初，成均提舉司，遣博士柳衍·學諭俞迪于江南，購書籍，未達而船敗，衍等，赤身登岸，判典校寺事洪滄，以太子府參軍，在南京，遣衍寶鈔一百五十錠，使購得經籍一萬八百卷而還。」

<sup>17</sup> 『元史』 食貨志 「元自世祖定江南，凡鄰海諸郡與蕃國往還互易舶貨者，其貨以十分取一，粗者十五分取一，以市舶官主之。」(馮先銘，『中國陶瓷』(上海古籍出版社，1997)，p.477 재인용)

<sup>18</sup> 張東翼，『元代歷史資料集錄』(서울대학교출판부，1999)，pp.326-327；姚燧，『牧庵集』 卷16 神道碑 榮祿大夫福建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司農史公神道碑 「公諱權，字煥卿，曾祖秉直…祖天倪…成宗元貞始年，賜錦衣二襲，拜資德大夫江浙行省右丞，…高麗王遣周侍郎浮海來商，有司求比泉廣市舶十取其三，公曰王于屬爲副車，且內附久，豈可下同海外不臣之國，惟如今三十稅一。」(文淵閣四庫全書 1201冊 集部 140，pp.564-567)

<sup>19</sup> 孫克寬，『元代漢文化之活動』(臺灣：中華書局，1968)，p.262；『新元史』 卷之一百三十八 列傳 第三十五 「權字煥卿權子，至元六年以格爲亳州萬戶，從圍襄陽時格無子，言於天澤，請以權爲子，天澤許之…」 사요는 사천택의 형인 사천예의 둘째 아들인 史權의 자식이었으나，사천택의 맏아들인 史格에게 자식이 없어 1269년에 그의 양자가 된 이래로 사천택과 사격의 후광을 받고 관료로서 입신하게 된다.

<sup>20</sup> 姚燧，『牧庵集』 卷19，「侍衛親軍都指揮使李公神道碑」(文淵閣 四庫全書 1201冊，pp.607-610.) 이백우의 신도비문에는 사천택과 이백우의 특별한 인연과 사천택의 넷째 아들인 史權과 이백우의 딸이 혼인한 사실，이백우의 24명의 손녀 중에서 6명이 사씨 집안에 시집 간 것 등을 언급하면서 이백우 집안과 사천택 집안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장동익，앞의 책(1999)，p.254. 1271년에 鳳州等處經略使로 고려에 왔던 史樞는 사천택의 조카이며 이백우 일족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sup>21</sup> 河北省文物研究所，「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發掘簡報」，『文物』 9기(1996)，pp.47-56；河北省文物研究所，「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發掘報告」，『河北省考古文集』(北京：東方出版社，1998)，pp.345-369.

<sup>22</sup> 『高麗史』 卷79 志 33 食貨 科餼 「…又遣中郎將宋瑛等，航海往益都府，以麻布一萬四千匹，市楮幣」

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무역의 범위는 浙江·江蘇省뿐만 아니라 山東省 일대까지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14세기 전반의 麗·元 交流

13세기 후반에 고려 왕실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제한적인 러·원 교류가 14세기 전반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충렬왕대에는 元의 諸侯國이 아닌 독자적인 왕조체제를 유지한다는 世祖의 舊制, 즉 원의 제도와 풍습을 수용하지 않는 '不改土風'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충선왕(1309-1313)은 고려가 원의 諸侯國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원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려 국왕의 위상을 높이고 러·원 관계에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sup>23</sup> 원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충선왕의 對元 정책은 원의 문물이 前代보다 큰 폭으로 고려에 유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세기 전반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것은 당시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선왕 5년(1313, 皇慶2)에 충선왕비인 계국대장공주가 왕과 함께 원에서 돌아올 때 前代에는 없었던 명칭이 모두 몽고어인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주목된다.<sup>24</sup> 충선왕은 재위기간 내내 원에 머물렀으며,<sup>25</sup> 충선왕 5년(1313)에 왕비인 계국대장공주와 돌아올 때 5년여 동안 원에서 사용하던 새로운 文物들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대식 器皿이 14세기 이후부터 고려 왕실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러·원 간에 정치·경제적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황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직에 재직하고 있던 원의 관리들에게도 國驥·國信이라고 하여 선

<sup>23</sup> 李益柱, 「麗元關係의 변화와 世祖舊制의 위기」,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pp.150-152.

<sup>24</sup> 『高麗史』 后妃 列傳2 忠宣王 薊國大長公主 「…金瓮一, 鍾二, 大鍾子六, 只里麻鍾子, 孛樂只鍾子及蓋兒各十, 銀札思麻十四, 番瓶二, 大鍾子·只里麻鍾子各十, 孛樂只鍾子十四, 察刺蓋兒·察渾蓋兒各六, 灌子二, 猪鬣鬍子及胡蘆各一, 摠金四十錠, 二十九兩, 銀六十八錠, 三十四兩, 諸器名, 皆蒙古語也, 車服斷送之盛, 前世所未有…」

<sup>25</sup> 金省俊, 「高麗後期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의 位置—특히 忠宣王妃를 중심으로—」, 『한국 중세 政治法制史 연구』(一潮閣, 1985), pp.186-187; 朴鍾進,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韓國史論』 9(1983, 12), pp.90-92. 충선왕(1275-1325)은 5년간의 재위 기간을 포함하여 생애의 30여 년을 원에서 보냈으며, 당시 전성기였던 원의 문물과 外祖였던 世祖는 충선왕뿐만 아니라 그가 추진하던 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을 바치는 것이 상례였다.<sup>26</sup> 선물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값어치가 높은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 뇌물로 쓰인 품목은 원의 화폐였던 鈔, 비단이나 布와 같이 당시에 화폐처럼 쓰이던 물건, 원 인종(1311-1320)이 충선왕에게 하사하였던 대정아나,<sup>27</sup> 조인규가 원 세조에게 바친 화금자기처럼 고급 공예품 등으로 당시 원의 관리들이 선호하던 고려의 산품이었을 것이다.

14세기 이후에도 왕실과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원과의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前代에 비해 민간무역이 활성화되었다.<sup>28</sup> 충혜왕(1330-1332, 1339-1344)은 沙器를 팔아서 巨商이 된 임신의 딸을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沙器販賣로 상업적 기반을 구축한 임신과 적극적인 국내의 무역을 추진하던 충혜왕과의 결탁에서 보더라도 14세기 중반경에 이루어졌던 對元 貿易에서 고려청자의 比重을 짐작할 수 있다.<sup>29</sup> 실제 江浙行省 慶元路 사람인 王厚孫(1300-1376)이 1342년에 편찬한 중국의 地方志인 『至正四明續志』에는 고려의 고급 무역품으로 청자가 기록되어 있어,<sup>30</sup> 당시 원에서 상감청자가 고급상품으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14세기 전반경은 충선왕의 즉위와 함께 원 文物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對元 무역의 범위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정치·경제적으로 원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 3. 14세기 후반의 麗·元 交流

공민왕(1351-1374)이 즉위하는 14세기 후반에는 1368년에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되면서 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의 對中 관계가 전개된다. 공민왕은 원의 풍습이나 제도를 혁파하

<sup>26</sup> 張東翼, 「麗·元의 經濟的 關係」, 앞의 책(1994), p.135; 『元史』 卷 144 列傳 第31 答裡麻 「高麗國使朝京, 道過遼陽, 謁省官, 各奉布匹·書一幅, 用征東省印封之。」

<sup>27</sup> 『高麗史』 世家 36 忠惠王 後即位年 5月 「丙子, 王, 遣大護軍孫守卿·全允藏, 魔金銀, 及大頂兒, 如元, 賂執事者, 求復位, 大頂兒, 乃仁宗皇帝, 賜德陵者也。」

<sup>28</sup> 위은숙, 「원간섭기 對元貿易—『老乞大』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호(1997. 12), pp.53-94.

<sup>29</sup> 『高麗史』 列傳 卷 第2 后妃2 銀川翁主 林氏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王見爲幸之, 有寵三年, 王將納和妃, 林氏妬之, 乃封爲銀川翁主, 以慰其意, 時稱沙器翁主.」; 전병무, 「고려 충혜왕대의 상업활동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제10호(1993), pp.231-260.

<sup>30</sup> 장동익, 「宋代의 明州 地方志 수록된 高麗關係記事 研究」, 『歷史教育論集』 第22輯(1997), pp.94-97. 1342년에 王厚孫과 徐亮에 의해 편찬된 『至正四明續志』에 나열된 고려산 품목은 細色이 134종, 粗色이 89종이다; 王厚孫·徐亮 纂, 王元恭 修, 『至正四明續志』 卷第五 土產條 (『宋元方志叢刊』 第7冊, 中華書局, pp.6502-6504 참조.)

는 개혁안을 시행하였으며, 14세기 전반기에 유명무실해졌던 世祖舊制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土風'을 회복하는 정책들을 시도하였다.<sup>31</sup>

이 시기에 중국은 元朝가 쇠퇴하고 강남일대에 잦은 전란과 할거세력들의 난립으로 張士誠, 方國珍, 王晟, 丁文彬 등이 중국 강남의 江蘇省과 浙江省 일대를 장악하게 된다. 이들은 고려와의 무역을 매우 중시하여 많은 물품을 고려에 보내고 있지만 방물의 세부 품목 중에 磁器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sup>32</sup> 방물의 품목이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사성이 요주(경덕진)일대를 장악한 시기인 1352년에서 1360년은 원대 요업이 중지된 상황이었다.

경덕진의 요업이 재개되고 1368년에 명조가 건국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麗·明 交流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 주원장은 정권을 잡으면서 장사성에게 협력했던 강남의 蘇·松·嘉·湖 지역의 豪族 및 富商들에 대한 보복성 탄압정책으로 중국 동남연해 일대 무역도시들의 대외무역을 금지하였다.<sup>33</sup> 명이 1384년에 고려에 공식적인 互市를 요청하기 전까지 양국의 외교관계 및 무역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sup>34</sup> 1384년 이후에 이루어진 對明 무역에서 교역로는 海路에서 陸路로 변화였다.<sup>35</sup> 이러한 무역로의 변화가 중국 내의 도자기 유통 상황과 연결되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는 중국 강남지역의 청화자기들이 거의 유통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대의 도자기 유통은 대략 남과 북 두 지역으로 나뉘어 각 지역의 제품이 그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소량의 양질제품만이 중국 전역을 판로로 삼아 운반되었다.<sup>36</sup> 고려와 원은 주로

<sup>31</sup> 이익주, 앞의 논문, p.217.

<sup>32</sup> 『高麗史』 世家 39 恭愍王 7年(1358) 7月; 同書 世家 39 恭愍王 8年(1359) 7月; 同書 世家 39 恭愍王 10年(1361) 3월; 同書 世家 39 恭愍王11年(1362) 7月; 同書 世家 39 恭愍王 12年(1363) 4월; 同書 世家 39 恭愍王 13年(1364) 6月; 同書 世家 39 恭愍王 13年(1364) 7月(이외에도 張士誠 등이 고려에 方物을 보낸 기록이 더 있으나 방물의 품목이 나열된 기록만을 발췌하였다).

<sup>33</sup> 田村實造, 「元末の叛亂とその性格」, 『中國征服王朝の研究(中)』(京都: 京都大學文學部 東洋史研究會, 1984), pp.608-616.

<sup>34</sup> 金鮮浩, 「14世紀末 蒙·麗關係와 東北亞 政勢變化」, 『江原史學』 第12輯(1996, 12), pp.99-104.

<sup>35</sup> 朴平植, 「麗末鮮初의 商業認識과 抑末策」, 『朝鮮前期商業史研究』(지식산업사, 1999), pp.37. 1384년경에는 이미 국경 부근 백성들 사이에서 互市從事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으며, 상인들이 권세가와 결탁하여 서북면의 萬戶·千戶職을 구하려 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대외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高麗史節要』 卷 32 辛福 9년 8月 「北界, 與女眞達達遼瀋之境相連, …, 今其居民, 每與彼俗互市, 日相親狎, 至結婚姻 …」 참조); 同著, 「開城商業의 復舊와 開城商人」, 같은 책, p.214. 원·명 교체 이후 중국이 해금정책을 천명하고 조선정부가 대외 사무역을 통제하는 방침을 강화함에 따라 西海를 이용한 대중국 사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赴京使行이나 육로를 통한 상인들의 사무역·밀무역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海路를 통해서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용천요 청자나 경덕진 자기들이 유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명대 초기에는 1389년에 길림북부지역에 三節都指揮使司가 설치되기 전까지 길림지역과 內地와의 교통이 두절되어 중국 남방지역에서 제작된 자기들이 북쪽 국경지역으로 운송될 수 없었다.<sup>37</sup> 따라서 성행했던 육로 무역으로는 중국 강남지역의 자기가 거의 유입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麗末·鮮初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상감분청사기)에 원대 청화 자기의 영향이 보이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 후반에도 상감청자를 포함한 고려 器皿이 중국 강절행성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었다.<sup>38</sup> 송림(1310-1381)이 찬한 천룡선사의 탐명 중에 지정 신축년(1361)에 시를 한 수 지어서 고려정병과 함께 강절행성 승상 달식첩목이에게 기별했다는 내용이나<sup>39</sup> 강절행성 松江府 사람인 조소가 1387년에 편찬한 『격고요론』에 고려 상감청자를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물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sup>40</sup> 14세기 후반경에 중국에서 상감청자와 같은 고려 기명이 고급품으로 인식되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14세기 高麗와 元의 陶磁 제작 배경

#### 1.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製作 背景

고려후기 상감청자의 제작 배경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官用磁器의 조달방법이 변화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생산과 수요가 늘어나고 商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점이다. 고려시대 전기까지 '所'제도로 운영되었던 관청수공업이 붕괴되면서, 貢賦收取制가 변하고 所를 이탈한 장인들에 의해 수공업품이 생산되면서, 고려후기에는 도시와 지

<sup>36</sup> 佐佐木達夫, 「元明時代の中國國內陶磁器流通」, 『元明時代窯業史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p.434.

<sup>37</sup> 張英, 「吉林扶余岱吉屯元墓出土瓷器」, 『文物』 9期(1994), p.19.

<sup>38</sup> 張東翼, 앞의 논문(1997), p.81. 러·원 무역에서 강절행성의 慶元路(明州)는 고려의 생산물이 대량 수출되어 강남 각지로 보급되는 거점이었으며, 원말의 강남 군웅 方國珍도 이곳을 장악하여 고려와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결하면서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sup>39</sup> 宋濂, 『宋學士全集』 補遺 8 天龍禪師無用貴公塔銘有序 「師諱守貴 字無用 水庵其別號也…至正辛丑 八月二十日 作偈一首 副以高麗淨瓶 寄別江浙行省丞相達識帖穆爾公…」(張東翼, 앞의 책(1999), p.119 재인용)

<sup>40</sup> 曹昭, 『格古要論』 卷 下, 「高麗窯 器皿色粉青 與龍泉窯相類 上有白花朵兒者 不甚直錢」(『文淵閣四庫全書』 V.871, p.107)

방의 유통경계가 활성화되어 민간상업이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41</sup>

14세기에 磁器가 민간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생산되는 상황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체현(1287-1367)의 『益齊亂藁』에는 자기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sup>42</sup> 충혜왕대(1340-1344)에는 沙器를 팔아서 상업적 기반을 마련한 林信이 巨商으로 성공하게 된다. 적극적인 국내외 무역을 추진하던 충혜왕이 임신과 결탁하는 사건을 보더라도 14세기 중반경에는 이미 청자가 상품으로 대량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3</sup> 고려후기에 상감청자가 상업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민간수요가 증가했던 상황은 중국 강남지역 일대에서 출토되는 14세기 상감청자나<sup>44</sup> 1357년에 우필홍이 鑪銅瓦器를 사용하게 하여 풍토에 따르게 하라는 상소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sup>45</sup>

고려후기에는 왕실 및 관부에 공납되는 상감청자에 干支를 새겨서 공납용자기의 수량을 파악하고 質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이러한 간지명 상감청자의 제작은 14세기 동안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다가 강진지역의 자기소가 해체되면서 14세기 말에는 중앙 관청인 사용에서 각 道에 사람을 보내어 공납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조달하도록 하고 있다.<sup>47</sup>

14세기 전반기에 성행했던 자기의 생산과 판매가 14세기 후반경인 1370년을 전후로 하여 강진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던 요업 체계가 해체되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급변하였다.<sup>48</sup>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의 멸망에 따른 對元 무역 중지하

<sup>41</sup> 李貞熙, 「수취제도의 변화」,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한국사 19(국사편찬위원회, 1996), p.299; 金東哲, 「수공업과 염업」, 같은 책, p.355.

<sup>42</sup> 『益齊亂藁』 卷 4 詩 「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 販瓷器稻米者, 時至而矣。」

<sup>43</sup> 진병무, 앞의 논문, pp.231-260.

<sup>44</sup> 馮先銘, 「中國出土朝鮮·伊朗古代陶瓷」, 『中國古代陶瓷論文集』(北京: 紫禁城出版社, 1987), pp.329-330; Feng Xianming, "Persian and Korean Ceramics Unearthed in China," *Orientalism* Vol. 17, No.5(1986), pp.47-53; 耿寶昌, 「閑話朝鮮高麗青瓷」, 『文物鑑賞叢錄 陶瓷(一)』(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157-165; 陸明華, 「略談上海博物館所藏高麗瓷」, 『文物』 6期(1988), pp.80-85; 金載悅,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4號(1999), pp.16-35.

<sup>45</sup> 崔健, 「粉青沙器의 成立 與件에 관한 考察」, 『문화재』21(1988), p.78; 『高麗史』 世家 卷第39 恭愍王 6年 「閏月, 戊甲, 司天少監于必興上書言, …凡器用鑪銅瓦器, 以順土風, 從之」

<sup>46</sup> 具一會, 「高麗時代 青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4호(1994. 12), pp.14-16;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青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 217·218(한국미술사학회, 1998), pp.13-15.

<sup>47</sup> 『高麗史』 118 列傳 31 諸臣 趙浚 「司饗,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元年 12月.

<sup>48</sup> 崔健, 「青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미술사연구회, 1998), p.15; 박경자, 「14세기 康津 磁器

도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서는 원의 화폐인 寶鈔가 1278년부터 원과 다름없이 유통되고 있었다.<sup>49</sup> 보초를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층이나 對元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의 몰락으로 인해 명목화폐에 불과하던 보초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은 경제적인 타격이 컸을 것이다.<sup>50</sup> 1368년 원의 몰락과 함께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은 상인계층의 몰락에는 沙器를 팔아 富를 축적했던 상인세력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원조의 몰락은 원의 정치·경제 상황에 예측되어 있던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진요가 해체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元의 陶磁 政策과 제작 배경

원대 자기가 제작되는 시기는 부량자국이 설치되는 1278년부터 원이 멸망하는 1368년 경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대 요업이 이루어지는 하한 시기는 전란으로 용천요와 경덕진 일대의 요업이 중지되는 1352년까지로 보고 있다.<sup>51</sup> 따라서 원대 요업의 전성기는 14세기 전반경이며, 이 시기에 제작된 원대 자기가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원대에 제작되었던 자기의 종류는 크게 龍泉窯 靑磁, 景德鎮 靑白磁·卵白釉磁·靑畫白磁·釉裏紅磁, 磁州窯磁 등으로 볼 수 있다. 원대 경덕진 요장은 13세기 후반에는 宋 後期에 제작되던 청백자의 전통을 유지하여 주로 청백자를 제작하였지만 이후에는 元朝의 專用磁器로 사용된 ‘樞府’, ‘太禧’, ‘東衛’ 등의 官司名이 압인되어 있는 卵白釉磁器가 주로 생산되었다. 난백유자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至治(1321-1323), 泰定(1324-1327), 天曆(1328-1329), 至順年間(1330-1332)이며, 이후에는 磁器의 중심이 청화자기나 釉裏紅磁器 등으로 점차 옮겨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52</sup> 원대 청화자기는 至正樣式 청화자기가 제작된 1341년부터 1351년경이 전성기였으며, 주로 수입 청료를 사용하였고 수출용으로 이용되었다.<sup>53</sup>

소의 해체와 窯業 체계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 238·239(한국미술사학회, 2003), pp.141-144.

<sup>49</sup> 張東翼, 「麗·元 交渉의 諸局面」, 앞의 책(1994), pp.139-140.

<sup>50</sup> 위은숙, 「원간섭기 직물수공업의 변화」, 『高麗後期 農業經濟研究』(해안, 1998), pp.201-202.

<sup>51</sup> 劉新園, 「元代窯事小考(一)」, 『陶說』 351號(1982. 6), p.27.

<sup>52</sup> 陸明華, 앞의 논문, p.23; 劉新園, 앞의 논문(1995), p.9.

<sup>53</sup> 朱裕平, 「元代靑花瓷的發展過程及其分期」, 『元代靑花瓷』(上海: 文匯出版社, 2000), pp.90-109. 원대 청화자기

부량자국은 황실 및 관부용 자기의 제작을 위하여 1278년에 饒州路(현재 경덕진)에 설치되었다.<sup>54</sup> 그러나 1320년경이 되면서부터 부량자국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sup>55</sup> 1325년경부터는 관부용 자기의 제작·감독 및 조달은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은 고위 지방관리(요주로 총관)들에 의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sup>56</sup> 이렇게 官用 磁器의 수급체계가 변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1325년 이후에 늘어나는 관용 자기의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sup>57</sup> 貢納用 자기 제작의 命이 없을 때는 官匠들이 商品磁器를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 세되는 대부분의 卵白釉磁器나 靑畫磁器가 이 시기에 상품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元代 晉宗 태정년간(1324-1327) 이후에는 공납용 자기의 수요증가와 官匠들이 공납용 자기와 함께 商品 磁器를 제작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원대 자기가 가장 활발하게 생산된 시기는 14세기 2/4분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14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 강남지역이 전란에 휩싸여 1352년에서 1360년경까지 窯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이미 원대 자기의 주요 생산 품종은 청화자기였지만 전란이 시작되는 1352년경부터 원이 망하는 1368년 이후까지 청화안료의 수입이 중단되어 중국산 토청이 사용되었다.<sup>59</sup> 14세기 후기에는 수입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제작되던 지정양식 청화자기와는 다른 양식의 중국산 토청을 사용한 청화자기들이 제작되었으며, 청화자기보다 유리홍자기가 많이 제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는 延祐期·至正期·元末期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연우기는 원대 청화자기의 준비단계로, 1271년부터 1340년경까지이다. 지정기는 원대 청화자기의 전성기이며, 1341년에서 1351년이다. 원말기는 1352년부터 1368년까지이며, 중국산 토청이 청화안료로 사용되었다.

<sup>54</sup> 『元史』 卷 八十八 志第三十八 百官四 將作院 「浮梁磁局, 秩正九品. 至元十五年立, 掌燒造磁器, 并漆造馬尾棕藤笠帽等事. 大使·副使各一員.」(劉新園, 위의 논문, p.23 재인용)

<sup>55</sup> 汪慶正, 앞의 논문, p.13.

<sup>56</sup> 『浮梁縣志』 浮梁州志序 「泰定 乙丑年 … 余出守是州之二月 郡刺史清泉段公蒙旨董陶至州.」(汪慶正, 앞의 논문, p.13 재인용); 『至順鎮江誌』 卷19 「稻田提舉堵閏 至順 2年 2月 … 奉命督陶器於饒」

<sup>57</sup> 陸明華, 「元代景德鎮卵白釉瓷燒造及有關問題」, 『中國陶瓷全集 11 元(下)』(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9), p.22.

<sup>58</sup> 劉新園, 앞의 논문(1982), pp.25-27.

<sup>59</sup> 朱裕平, 앞의 논문, pp.108-109.



도 1 靑磁象嵌柳蘆水禽文대접, 고려 14세기 전반,  
높이 8.0cm 입지름 17.8cm 밑지름 6.1cm



도 2 卵白釉印花蓮文대접, 元 경덕진 14세기 전반,  
높이 8.2cm 입지름 17.3cm 밑지름 5.7cm,  
內蒙古自治區博物館

#### IV.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조형 요소

前代에는 보이지 않던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새로운 기형과 문양에서 원대 자기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기형에서는 구연외반식대접, 고족배, 귀대접 등의 새로운 器種이 등장하여 원대 자기와 영향 관계를 볼 수 있다. 문양에서는 전대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용문, 봉황문, 어문 등과 새롭게 등장하는 연화당초문, 돌기문, 반원형의 해수문, 어조문 등에서 원대 자기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 1. 器形

###### 1) 口緣外反式대접

구연외반식대접은 고려 13세기 후반경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기형으로, 원대 난백유자기의 영향이나 고려 후기에 금속기를 대체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었다.<sup>60</sup> 고려 1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靑磁象嵌柳蘆水禽文대접〉은 구연이 외반하면서 굽이 높고 좁으며 접지면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구연외반식대접이다<sup>도1</sup>. 중국에서 이러한 기형은 원대 14세기 전

<sup>60</sup>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p.111; 李鍾致, 「14世紀 後半 高麗象嵌靑磁의 新傾向」, 『美術史學研究』 201호(한국미술사학회, 1994), pp.16-17; 片山まび, 「陶磁器から見た麗元關係」, 『高麗美術館紀要』 第二號(1998. 11), p.76.



도 3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  
고려 1332년, 높이 8.9cm, 삼성미술관



도 4 卵白釉描金高足杯,  
元 景德鎮 1325-1351년, 높이 8.3cm



도 5 靑磁象嵌雲鳳文高足杯, 고려 14세기,  
높이 10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 6 卵白釉描金高足杯,  
元 景德鎮 1325-1351년, 높이 8.9cm

반에 경덕진 湖田窯에서 제작된 대접에서 볼 수 있다.<sup>61</sup> 中國 內蒙古 烏盟察右前旗土城子에서 출토된 〈卵白釉印花蓮文대접〉은 원대 말기에 경덕진 호전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난백유자기대접의 전형적인 기형이며,<sup>62</sup> 상감청자의 구연외반식대접과 크기나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도2. 상감청자의 구연외반식대접은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되는 원대 난백유자기와 관련성이

<sup>61</sup> 劉新圖, 「景德鎮湖田窯各期典型碗類的造型特征及其成因考」, 『文物』 11期(1980), p.58. 〈湖田窯典型碗類造型分期圖〉 참조.

<sup>62</sup> 傅寧, 『中國陶瓷全集』 10 元 (上)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9), pl.108, p.250.



도 7 青磁象嵌柳蘆水禽文귀대접, 고려 14세기 전반, 높이 6.7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 8 青磁귀대접, 원 龍泉窯 14세기 전반, 높이 6.3cm, 浙江省 泰順縣 元代 窖藏 출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高足杯

고족배는 원주형의 높은 굽다리가 완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중국에서도 원대에 들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器種이다.<sup>63</sup> 〈青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이하〈‘壬申’銘高足杯〉)는 배의 형태가 거의 반원형에 가깝고 高足이 ‘八’형으로 외반하면서 저부의 끝이 말린 형태이다. 도3. 〈青磁象嵌雲鳳文高足杯〉는 杯의 아랫부분이 넓어져서 반타원형에 가깝고, 高足の 형태도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약간 벌어지면서 쪽 뺀 형태이다. 도5. 이러한 두 가지 기형의 상감청자 고족배는 1325년에서 1351년경으로 추정되는 중국 安徽省 歙縣의 元代 窖藏에서 출토된 두 개의 〈卵白釉描金高足杯〉의 기형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도4, 6.<sup>64</sup> 상감청자 고족배는 원대 14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난백유자기와 관련성을 볼 수 있으며, 〈‘壬申’銘高足杯〉에서 壬申의 연대도 1332년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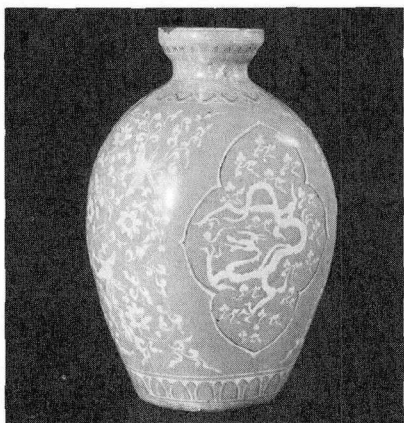
## 3) 귀대접

귀대접은 대접의 구연부분에 주둥이가 달린 형태이며, 중국에서는 匱라고 한다. 조소는 『格古要論』의 古窯器論에서 壺, 瓶, 觥折盃, 茶鐘, 臺盤 등은 胡人이 사용하던 것으로 중국에서 원대부터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5</sup> 이 중에 觥折盃는 匱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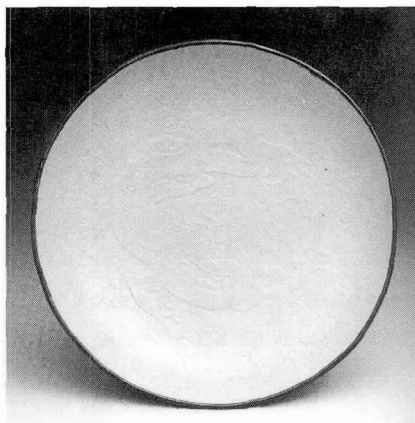
<sup>63</sup> 朱伯謙, 「龍泉青瓷簡史」, 『龍泉青瓷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8 2쇄), p.26.

<sup>64</sup> 李輝柄, 「歙縣元代窖藏瓷器的幾點觀感」, 『文物』5期(1988), p.90.

<sup>65</sup> 曹昭, 『格古要論』古窯器論 「古人用湯瓶·酒注, 不用壺·瓶及觥折盃·茶鐘·臺盤, 此皆胡人所用者, 中國人用者



도 9 靑磁象嵌龍鳳文扁瓶, 고려 13세기 후반, 높이 27.7cm, 시카고미술연구소



도 10 白磁龍文盤, 宋 定窯, 입지름 23.1cm



도 11 靑磁象嵌辰砂彩龍文瓶, 고려 14세기, 높이 38.9cm, 호림박물관

도 12 靑磁龍文盤, 元 龍泉窯 14세기, 입지름 43.1cm,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London

있으며<sup>66</sup> 실제 요지 발굴에서도 귀대접 형태의 그릇은 원대 이후에 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67</sup> <청자상감유로수금문귀대접>과 같이 상감청자로 제작되는 귀대접의 형태는 원대 용

始於元朝, 古定官窯, 俱無此器。」

<sup>66</sup> 陸錫興 主編, 『中國古代器物大詞典』 器皿(河北教育出版社, 2001), p.579.

천요 청자나 청백자, 난백유자기의 귀대접과 유사해 양자간의 영향관계를 볼 수 있다<sup>7,8</sup>.

앞서 언급한 상감청자의 기형은 대부분 14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는 원대 자기와 영향관계가 보인다. 이러한 제작상황은 충선왕이 1313년에 고려에 가지고 왔던 원대 器物이 前代에는 없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볼 때, 14세기 이후부터 원대 기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상감청자에서도 새로운 기종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文樣

### 1) 용문

〈청자상감용봉문편병〉은 기형과 용과 봉황을 같이 시문한 점 등에서 전대 상감청자와 다른 새로운 요소를 수용하여 제작된 13세기 후기의 작품이다<sup>9</sup>.<sup>68</sup> 용문은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자세이며, 뒷다리와 꼬리를 교차하여 'O'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용문은 송대 정요 자기에 시문되는 용문의 전형적인 특징이며<sup>도10</sup>,<sup>69</sup> 이미 前代 고려청자에 서 양각이나 상감기법으로 시문되어 사용된 문양 형태이다.

〈청자상감진사채용문병〉에 시문된 용문은 서 있는 자세로 표현된 입식룡의 형태이며, 꼬리가 앞으로 길게 나와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었다<sup>도11</sup>. 이러한 형태는 14세기 원대 용천요 청자에 시문되는 용문의 특징으로, 〈청자용문반〉에서 볼 수 있다<sup>도12</sup>. 용의 허리부분을 비튼 점이나 용머리와 다리에 휘날리는 갈퀴가 표현되지 않는 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표현방법이다.

〈청자상감용문호〉는 紀年이나 방증자료는 없이 중국 안휘성 滁縣에서 출토되었다<sup>도13</sup>. 〈청자상감용문호〉는 두 줄의 백상감선으로 전체적인 문양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견부에는 연화당초문, 동체에는 황룡문, 저부에는 연판문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원대 경덕진 청백자호나 매병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1324년경에 경덕진 남산지방에서 제작된 원대 〈청백자용문호〉와 유사하다<sup>도14</sup>.<sup>70</sup> 이러한 원대 전형적인 청백자용문호와 매병은 신안해저

<sup>67</sup> 裴亞靜, 「簡論景德鎮宋元時期青白瓷器」, 『中國古陶瓷研究』 第五輯(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pp.210-213. 경덕진에서 생산된 청백자의 양식변천 중에 제5기는 元代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多穆壺, 匜, 洗, 帶座가 있는 瓶, 爐, 淺盤, 高足杯 등의 새로운 器種의 磁器가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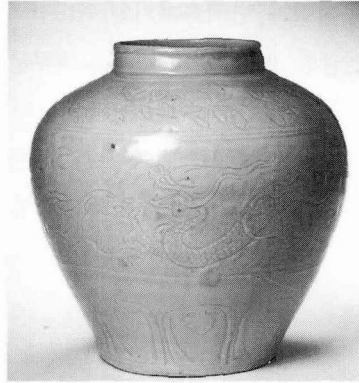
<sup>68</sup> 윤용이,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陶藝 VI 青磁(1986), p.89.

<sup>69</sup> 妙濟浩·薛增福, 「河北曲陽北鎮發現定窯瓷器」, 『文物』 5期(1984),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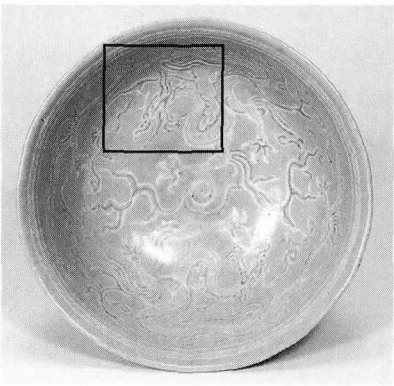
<sup>70</sup> 佐藤雅彥, 『世界陶磁全集13遼·金·元』(東京: 小學館, 1981),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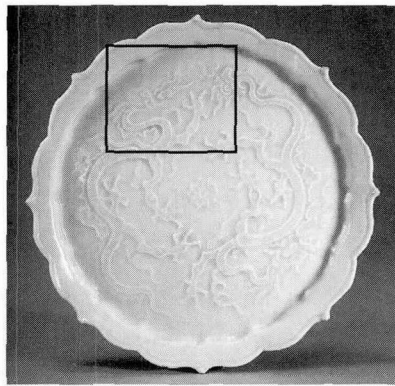
도 13 靑磁象嵌龍文壺, 고려 14세기 전반,  
높이 23cm, 安徽省博物館



도 14 靑白磁龍文壺, 元 景德鎮 14세기 전반,  
높이 31.5cm,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아트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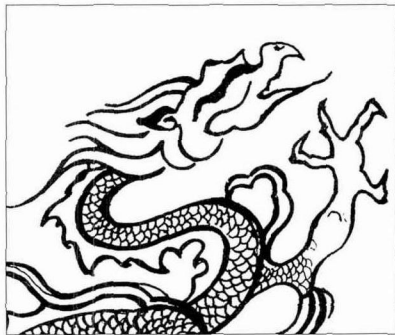
도 15 靑磁象嵌龍文대접, 고려 14세기,  
높이 8.9cm, 입지름 18.3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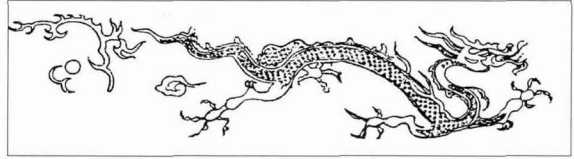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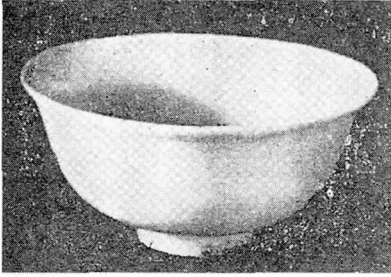
도 16 卵白釉印花龍文盤, 元 景德鎮 14세기,  
입지름 16.2cm, 河北省博物館



도면 1 도 15의 용문 세부



도면 2 도 16의 용문 세부



도면 3 도 17의 용문 세부  
 도 17 靑白磁雲龍文大碗, 元 景德鎮 14세기 전반,  
 높이 9cm, 입지름 19cm

에서도 발견되었다.<sup>71</sup> 특히, 어깨부분에 시문된 연화와 연잎, 당초의 표현이나 동체에 시문된 황룡의 얼굴이 해체된 듯 모호하게 표현된 것도 청백자의 용문의 불분명한 형태와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이 용문호의 제작 시기는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나 14세기, 최근에는 14세기 후반이나 약간 더 늦은 시기로 보기도 한다.<sup>72</sup> 그러나 경덕진 청백자 문양과의 관련성을 볼 때, <칭자상감용문호>가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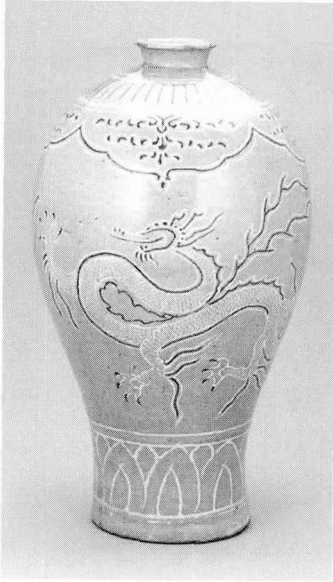
고려 14세기 <靑磁象嵌龍文대접>의 내측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역S'형의 가는 목과 4爪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sup>도 15</sup>. <칭자상감용문대접>에 시문된 용문은 中國 河北省 保定市 永華 南路에서 출토된 <난백유인화용문반>에 표현된 용문과 매우 유사하다<sup>도 16</sup>. <난백유인화용문반>의 용문에서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형태인 점, 용의 아랫주둥이가 길고 끝이 날카롭게 표현된 점, 윗주둥이의 끝이 구부러져 있고, 용의 뒷머리에서 바로 갈퀴가 표현된 점, 'S'자형의 가는 목의 형태 등이 <칭자상감용문대접>의 용문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sup>도면 1, 2</sup>. <靑磁象嵌龍文대접>과 같이 내측면에 두 마리의 龍文이 시문된 구연외반식 형태의 난백유자기대접이 新疆伊犁地區 霍城縣과 1338년에서 1353년경의 元代 墓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sup>73</sup> 新疆伊犁地區 霍城縣에서 출토된 <卵白釉印花雲龍文대접>의 내측면에는 두 마리의 용문이 구름과 함께 압인되어 있다. 용문의 목은 가늘고 'S'자형이며, 발톱은 4爪로 표현되어 있다<sup>도 17</sup>, 도면 3.

<靑磁象嵌龍文梅瓶>은 3단으로 문양이 구성되어, 견부에는 變形蓮瓣文이, 저부에는 二

<sup>71</sup> 佐藤雅彦, 위의 책, pl.187, p.315; 金元東, 「新安에서 沈沒된 元代 木船의 沈沒 年月과 引揚된 陶磁의 編年에 관한 研究」, 『미술자료』 42호(1988. 12), pp.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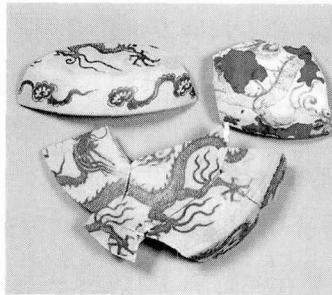
<sup>72</sup> 馮先銘, 앞의 논문(1987), p.330; 耿寶昌, 앞의 논문, p.160; 김재열, 앞의 논문, p.21.; 劉毅, 「元集寧路窖藏出土 龍形硯滴與高麗靑瓷斷代」, 『中國古陶瓷研究』 第十一輯(2005. 11), pp.84-86.

<sup>73</sup> 新疆博物館, 「新疆伊犁地區霍城縣出土的元靑花瓷等文物」, 『文物』 第8期(1979), p.27, pl.4, 13; 沈令昕·許勇翔, 「上海市青浦縣元代任氏墓葬記述」, 『文物』 第7期(1982), pp.5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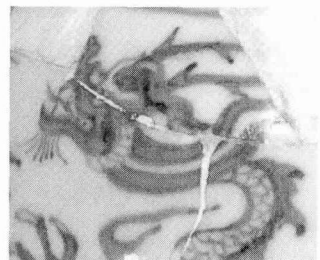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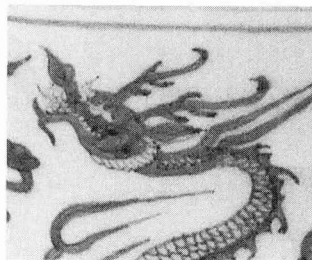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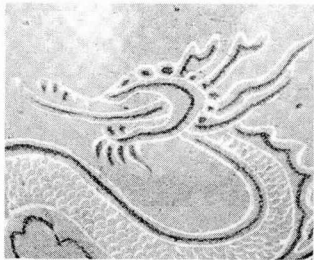
도 18 靑磁象嵌龍文梅瓶,  
고려 14세기 전반,  
높이 34.2cm,  
高麗美術館

도 19 靑畫龍文梅瓶,  
元 景德鎮 14세기 전반,  
높이 39.8cm,  
江蘇省句容市博物館



도 20 靑畫龍文盒, 元 景德鎮  
높이 11.2cm

도 21 靑畫龍文硯蓋片,  
元 景德鎮



도 18-1 도 18의 용문 세부

도 19-1 도 19의 용문 세부

도 20-1 도 20의 용문 세부

重蓮瓣文이, 동체에는 용문이 시문되었다도 18. 용문은 앞으로 내민 다리에만 다섯 개의 발톱인 五爪가 표현되고 나머지 다리에는 네 개의 발톱이 표현되었다. <청자상감용문매병>에서 단을 나누어 문양을 시문하고, 동체에 橫龍文을 시문하는 것은 江蘇省 句容市 元代 窖藏

에서 출토된 〈청화용문매병〉과 유사하며<sup>도19</sup>, 특히 용문의 세부형태에서 원대 景德鎮 珠山에서 출토된 청화자기의 용문과 매우 유사하여 구체적인 관련성을 볼 수 있다<sup>도20, 21</sup>.

景德鎮 珠山에서는 출토된 〈靑畫龍文硯蓋片〉과 〈靑畫龍文盒〉의 제작시기는 원대 文宗의 在位年間인 1329년부터 133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거나 1329년에서 1340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74</sup> 두 가지 견해에서 모두 청화용문편들이 제작된 상한 연대가 1329년이며, 경덕진 주산에서 출토된 용문형태가 적어도 1340년경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감청자매병과 원대 청화자기의 용문은 모두 횡룡의 형태이며, 앞뒤다리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갈퀴가 표현, 일부분이지만 원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五爪의 표현에서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용의 얼굴에서는 각진 두 개의 뿔과, 용머리 뒤쪽에 알알이 이어져 있는 작은 원의 표현, 원에서부터 나가는 두 갈래의 갈퀴 표현 등의 세부 형태에서 영향관계를 볼 수 있다<sup>도18-1, 19-1, 20-1</sup>.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일부 상감분청사기의 용문에서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분청상감용문병〉은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분청사기병의 전형적인 형태이다<sup>도22</sup>. 그러나 문양 구성은 14세기 전반경의 원대 청화자기매병과 유사하고, 문양 형태는 1341년에서 1351년 사이에 제작되는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와 관련성이 보인다<sup>도23</sup>. 〈至正 11年銘瓶〉은 원대 至正樣式 청화자기의 대표적인 예이며, 1351년이라는 제작시기의 절대연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용문은 몸체의 비늘이 크게 표현되고, 복부에 촘촘하게 횡으로 이어진 圓圈들이 표현되며(蛇腹), 前時期에는 세 갈래로 표현되던 앞뒤다리의 갈퀴가 많이 시문되는 특징이 있다.<sup>75</sup> 〈분청상감용문병〉의 용문에서도 배부분에 연이은 작은 원과 以前에 비해 굽어진 용의 목을 볼 수 있다. 동그랗게 표현된 눈의 모습이나 위아래로 벌리고 있는 입의 형태, 벌린 입 안 이빨의 표현, 뿔과 갈퀴표현이 불분명한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다<sup>도22-1, 23-1</sup>. 〈분청상감용문병〉의 견부에 표현된 여의두문, 해수문, 연화, 오리문양도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전형적인 문양이며, 〈靑畫鴛鴦文大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sup>도22-2, 24</sup>.

13세기 후반 상감청자에 시문된 용문은 송대 定窯 자기에 시문되는 용문 형태이지만 14

<sup>74</sup> 劉新園, 앞의 논문(1995), pp.10-11; 梁穗, 「景德鎮珠山出土的元明官窯瓷器」, 『景德鎮出土元明官窯瓷器』(北京: 文物出版社, 1999), pp.14-15.

<sup>75</sup> 梁穗, 위의 논문, 같은 곳. 1329년에서 1340년 사이에 제작되는 원대 청화자기의 용문은 용 몸체에 비늘편이 작고, 복부에 橫圓文이 없으며, 앞뒤다리의 갈퀴는 세 갈래로 길게 표현되어 1341년에서 1351년 사이에 제작되는 至正樣式 청화자기의 용문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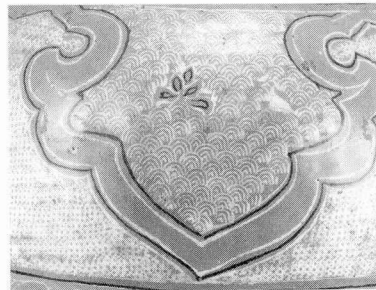
도 22 粉靑沙器象嵌龍文瓶,  
조선 15세기 초,  
높이 49.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3 靑畫龍文象耳瓶,  
元 景德鎮  
至正11년(1351),  
(좌)높이 63.6cm,  
(우)높이 63.4cm,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도 22-1 도 22의 용문 세부  
도 23-1 도 23의 용문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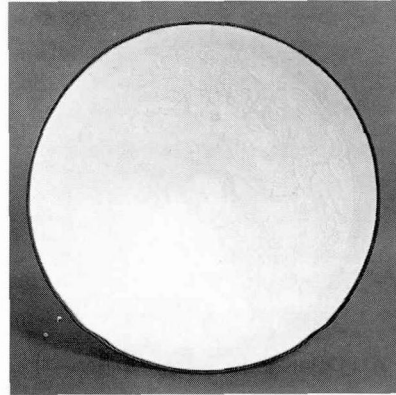
도 22-2 도 22의 해수연화문 세부



도 24 靑畫鴛鴦文大盤, 元 景德鎮 14세기, 입지름 42.3cm,  
中國 內蒙古呼和浩特市托縣 출토, 內蒙古博物館



도 25 도 9의 鳳文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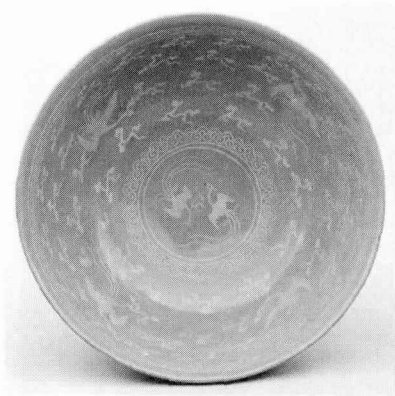
도 26 白磁鳳凰文碗, 北宋 定窯 11세기,  
입지름 19.7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세기 전반경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는 元代 용천요 청자, 경덕진 청백자·난백유자·청화 자기에 시문되는 용문과 유사한 형태의 용문이 시문되었다. 원대 청화자기의 영향은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상감분청사기까지 지속되었으며, 14세기 전반경에 원대 청화자기를 모본으로 제작된 상감청자가 주문양만을 수용하였던 반면에 15세기 초 상감분청사기에서는 주문 양과 종속문양 등 문양 구성까지 모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봉황문

13세기 후기에 제작된 〈청자상감용봉문편병〉의 용문이 송대 정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봉황문에서도 송대 정요 자기와 관련성을 볼 수 있다. 편병의 봉황은 꼬리 깃털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가운데 꼬리가 길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sup>도25</sup>. 이러한 형태의 봉황문은 송대 〈정요백자완〉이나 이미 前時期의 상감청자에서 볼 수 있다<sup>도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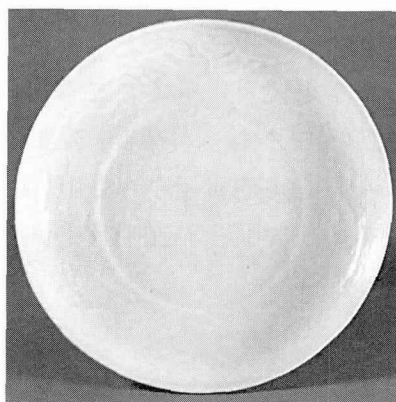
13세기 후기에는 〈청자상감운봉문대접〉과 같이 내측면에 동일한 형태의 봉황이 시문되었다<sup>도27</sup>.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봉황문은 각각 다른 형태의 꼬리를 가진 봉황이 쌍을 이루는 형식으로 변화하는데, 〈청자상감봉황연화문대접〉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sup>도28</sup>. 꼬리 형태가 다른 봉황의 표현은 1328년에 제작된 원대 〈난백유인화봉황문반〉<sup>도29</sup>, 1304년에서 1315년 사이로 편년되는 江蘇省 吳縣 呂師孟 墓에서 출토된 〈八棱銀盒〉<sup>도30</sup>,<sup>76</sup> 日本 上杉神社에 소장된 1309년의 〈아미타삼존도〉 중 아미타의 옷에 그려진 금니의 봉황문에서 확인할 수 있



도 27 靑磁象嵌雲鳳大접, 고려 13세기 후반,  
입지름 18.5cm, 삼성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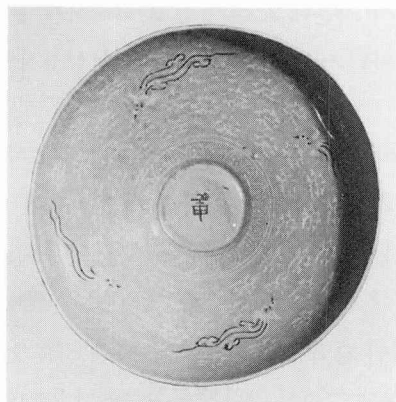
도 28 靑磁象嵌鳳凰唐草文大접, 고려 14세기  
전반, 입지름 19.4cm, 삼성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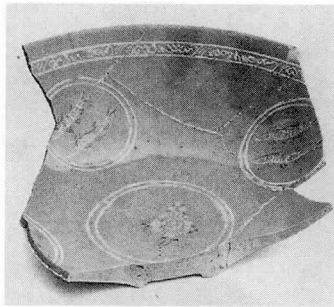
도 29 卵白釉印花鳳凰文盤, 元 景德鎮  
1328년(天順年造銘), 입지름 21cm



도 30 八棱銀盆, 元, 1304-1315년,  
지름 24.8cm



도 31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大접,  
고려 1332년, 입지름 19.0cm,  
호놀룰루미술관



도 32 靑磁象嵌雙魚文大椀片,  
莞島法華寺址 출토  
도 33 白磁印花雙魚文碗,  
입지름 17.3cm,  
南宋博物院

어서, 1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원대 古城으로 추정되는 14세기 생활유적지에서 출토된 〈靑磁印花鳳凰文大椀〉에는 세 개의 자연스러운 선으로 구성된 꼬리를 가진 봉황과 화려하고 길게 표현된 당초형식의 꼬리를 가진 봉황이 표현되어 있다.<sup>77</sup> 상감청자에서도 〈'임신'명고족배〉, 〈'임신'명대접〉에서 꼬리 형태가 다르면서 두 마리씩 짝을 이루고 있는 봉황의 표현을 볼 수 있어서 '임신'의 연대가 1332년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있다<sup>도 31</sup>.

봉황문의 경우도 용문과 같이 13세기 후반경에는 송대 정요 자기에 시문되는 봉황문의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청자에 이미 이전 시기부터 보이는 형태였으며, 봉황문에서 새로운 형식은 14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원대 용천요 청자, 난백유자기, 금속공예, 불화 등에서 보이고 있다. 상감청자에서도 14세기 이후에 꼬리 형태가 다른 봉황이 쌍을 이루어 표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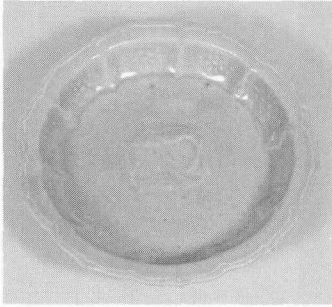
### 3) 魚文

13세기 후기 상감청자에 시문되는 雙魚文에서는 송대 정요 자기와 원대 초기 용천요 청자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완도 범화사에서 출토되어 제작 하한연대가 1271년으로 비정되는 〈청자상감쌍어문대접〉에 시문된 쌍어문은 두 마리의 물고기를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한 형태이다<sup>도 32, 78</sup>. 이러한 형태의 쌍어문은 慶元 5년(1199) 宋墓에서 출토되어 12세기 말에 정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인화쌍어문완〉에서 볼 수 있다<sup>도 33, 79</sup>.

<sup>76</sup> 王德慶, 「江蘇吳縣元墓清理簡報」, 『文物』 11期(1959), p.19, pl.3.

<sup>77</sup> 新疆博物館, 「新疆伊犁地區霍城縣出土的元青花瓷等文物」, 『文物』 8期(1979), p.27.

<sup>78</sup> 韓盛旭, 『高麗後期 靑瓷의 性格—器形과 胎土 分析을 中心으로—』(木浦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1), pp.16-17.



도 34 靑磁陽刻波魚文접시,  
고려 14세기,  
입지름 13.5cm,  
해강도자미술관

도 35 靑磁雙魚文盤,  
元 龍泉窯,  
龍泉 金村窯址 출토



도 36 靑磁象嵌雙魚文龍頭形盞,  
고려14세기 전반, 입지름  
8.3cm, 靜嘉堂文庫美術館

도 37 靑磁象嵌雙魚文접시,  
고려 14세기 후반,  
입지름 14.3cm,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이 시기에는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된 쌍어문과 함께 등을 맞댄 형태의 쌍어문이 새롭게 등장한다. 13세기 후기로 추정되는 <청자양각파어문접시>의 바닥면에는 꼬리가 거의 90도로 휘어지면서 등을 맞댄 형태의 쌍어문이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sup>도34</sup>. 구연이 꺾여 뿔이 있고 접시 바닥에 쌍어문이 堆貼된 청자반은 원대 早期인 13세기 3/4기에서 4/4분기경에 용천요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14세기 원대 용천요 청자반에서 많이 제작되었다<sup>도35</sup>.<sup>80</sup> 그러나 <청자양각파어문접시>의 쌍어문은 원대 용천요 <청자쌍어문접시>에 비해 어문의 형태가 길고 날씬하며, 도드라진 정도도 미미한 편이다. 등을 맞댄 형태의 쌍어문은 원대 용천요 청자의 영향이 보이지만 길고 날씬한 형태의 물고기 표현에서는 송대 정요 자기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청자상감쌍어문용두형잔>의 쌍어문은 바닥면보다 매우 도드라지게 표현되어<sup>도36</sup>, 용천요 청자반에 퇴첩기법으로 시문된 쌍어문처럼 양감이 강조되었

<sup>79</sup> 館文, 『中國陶瓷全集 7 宋(上)』(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9), pl.82, p.240.

<sup>80</sup> 朱伯謙, 「龍泉大窯古瓷窯遺址發掘報告」, 앞의 책, pp.61-62; 張翔, 「龍泉金村窯址調查發掘報告」, 같은 책,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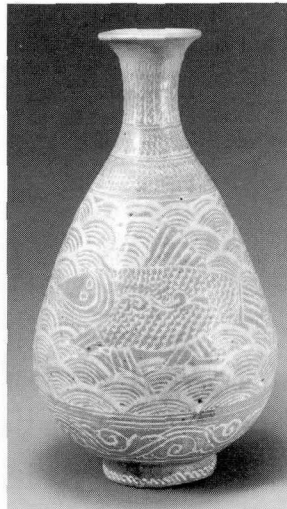
도 38 靑磁象嵌魚藻文접시편,  
고려14세기 후반,  
康津靑磁資料博物館  
도 39 靑畫魚藻文盤, 元  
景德鎮 14세기,  
입지름 36cm,  
伊梅爾達博物館

다. 14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 도리포 출토 <청자상감쌍어문접시>의 쌍어문은 線象嵌으로만 표현되어서 전시기에 비해 간략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도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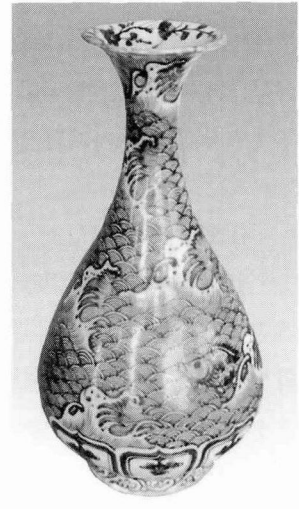
14세기 중후반경 이후인 고려말·조선초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의 어문에서도 원대 至正樣式 청화자기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강진 사당리 10호요지에서 수습된 <청자상감어조문접시편>은 구연이 꺾인 전접시 형태의 기형과 내저면에는 물고기와 수초가 상감되어 있다도38. 물고기와 수초 문양은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특징적인 소재이며도39, 고려 14세기 말기의 상감청자접시에 주문양으로 수용되어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움직임과 흔들리는 수초를 유려한 상감선으로 표현하였다.

조선 초에 제작되는 <분청상감해수어문병>에서 동체 전면을 반원형의 해수문으로 채우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문양도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병의 전형적인 특징이어서 양자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도4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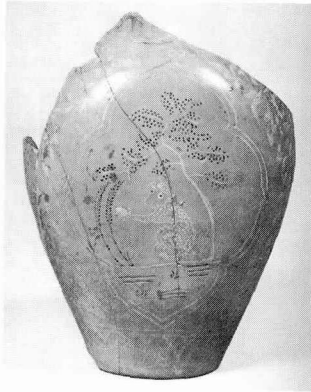
13세기 후반 상감청자의 魚文에서도 송대 정요 자기의 영향이 보이다가 점차 13세기 4/4분기에 용천요 청자에서 주로 보이는 등을 맞댄 형태의 쌍



도 40 粉靑沙器象嵌魚文瓶,  
조선 15세기, 호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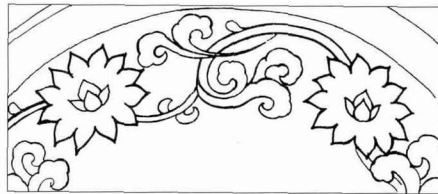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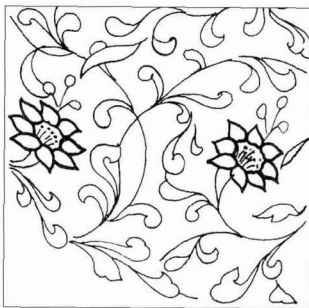


도 41 靑畫海水魚文瓶,  
元 景德鎮 14세기



도 42 靑磁象嵌金彩樹下猿文扁瓶,  
고려 13세기 후반,  
높이 25.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3 卵白釉印花蓮花唐草盤,  
元 景德鎮, 樞府銘,  
입지름 16cm, 上海博物館



도면 5 도 43의 연화당초문 세부

도면 4 도 42의 연화당초문 세부

어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였다. 14세기 상감청자에서는 용친요 청자에 퇴첩기법으로 시문되는 쌍어문처럼 양감이 두드러진 쌍어문이 시문되었다. 麗末·鮮初 상감청자에는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전형적인 문양인 魚藻文이나 海水魚文 등이 시문되고 있어 원이 멸망한 이후에도 원대 청화자기의 영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연화당초문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서 편병, 호, 대접 등에 종속문양으로 사용되는 연화당초문은 13세기 후기에 새롭게 보이는 문양이다. 개성시 만월대에서 출토된 〈靑磁象嵌金彩樹下猿文扁瓶〉의 연화당초문은 면상감기법으로 시문되며, 연화는 7-8개의 끝이 뾰족한 연화잎을 잇댄 형태에 안팎으로 3-4개의 꽃술이 있고, 도안화된 듯한 당초문은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되었다(도 42, 도면 4). 이러한 형태의 연화당초문은 원조의 전용자기였던 〈추부명난백유반〉에 시문되는 연화당초문과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도 43, 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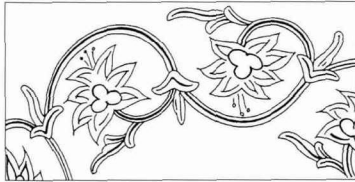
13세기 후반에 면상감기법으로 시문되던 연화당초문은 14세기 이후에는 흑백 상감선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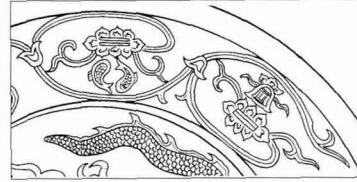
도 44 靑磁象嵌蓮花唐草文 '己巳'銘대접,  
고려 1329년, 입지름 18.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5 卵白釉印花龍文 '太禧'銘盤,  
元 景德鎮 1329년-1340년,  
입지름 17.8cm, 北京大學考古學系



도면 6 도 44의 연화당초문 세부



도면 7 도 45의 연화당초문 세부

로 시문되면서 주로 대접의 내측면에 주문양으로 사용된다. 특히 〈靑磁象嵌蓮花唐草文 '己巳'銘대접〉(이하 〈己巳'銘대접〉)에 시문된 연화당초문의 형태는 〈卵白釉印花龍文 '太禧'銘盤〉(이하 〈태희명반〉)의 내측면에 압인된 변형연화당초문과 유사하여 주목된다<sup>도 44, 45</sup>. 〈'太禧'銘盤〉은 '太禧'라는 명문이 압인되어 있어, 元朝의 祭祀·典禮를 담당하던 기구였던 太禧宗煙院에서 사용하던 祭器로 보고 있다. 〈태희명반〉의 제작시기는 『元史』에 기록된 태희종연원의 존속시기에 따라서 1329년에서 1340년으로 보거나,<sup>81</sup> 원 문종이 재위한 기간인 1329년에서 1332년 사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82</sup> 따라서 〈태희명반〉은 1329년을 상한시기로 하여 제작된 원대 대표적인 난백유자기이다.

<sup>81</sup> 陸明華, 앞의 논문, p.27; 『元史』卷87 志第三十七 百官三 「太禧宗禮院, 秩從一品, 掌神御殿朔望歲時諱忌日辰禋享禮典, 天歷元年, 罷會福, 殊祥二院, 改置太禧院以總制之. 初, 院官秩正二品, 升從一品, 置參議二員, 改令史爲掾史. 二年, 改太禧宗禮院, 置院使六員, 增副使二員, 立諸總管府爲之屬。」

<sup>82</sup> 劉新園, 「元文宗 圖帖睦爾時代之官窯瓷器考」, 『文物』11期(2001), p.53. 순제는 원통 1년(1333)에 즉위하자마자 원종 재위년간에 造作된 것을 罷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태희명반〉이 제작된 시기는 원종년간(1329-1332)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元史』卷三十八 順帝一 「元統二年 三月 辛卯, 以陰陽家言, 罷造作四年。」



도 46 靑磁象嵌蓮花唐草文「正陵」銘대접,  
고려 1365-1374년, 입지름 19.5cm,  
국립중앙박물관

〈'己巳'銘대접〉의 연화당초문 형태는 당초줄기에 잎이 표현되지 않고 도안화된 듯한 형태로, 다른 연화당초문의 형태와 차별되는 것이다. 반원 형태로 돌아가는 당초줄기는 백토로 상감된 두 줄의 선 안에 한 줄의 흑상감선을 삽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당초문의 줄기에는 일반적으로 잎이 표현되지만 〈'己巳'銘대접〉 연화당초문의 줄기에는 잎이 표현되지 않고 줄기의 마디마다 표현된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봉우리형의 잎 모양이나 줄기 끝의 표현이 도안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줄기 끝의 형태나 줄기 중간에 봉우리를 엮어놓은 듯한 표현, 잎이 표현되지 않은 점에서 〈태희명반〉의 당

초문과 유사점을 볼 수 있다도면6.7. 〈'己巳'銘대접〉의 연화당초문은 대접의 내측면에 선상감으로 표현되면서 연화 안에는 꽃술이 없어지고 세 개의 작은 원을 잇댄 형태는 13세기 후기의 연화당초문이 면상감으로 표현되고 3-4개의 꽃술이 시문되는 형태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己巳'銘대접〉의 제작연대가 1329년으로 비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太禧'銘盤〉은 북경에서만 세 점이 발견되었으며, 字銘·胎質·釉色·裝飾·造形·크기 등이 동일하여 하나의 모본을 가지고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3</sup> 〈'己巳'銘대접〉도 동일한 문양과 기형을 가진 대접이 여러 점이 제작되었기 때문에,<sup>84</sup> 당시 려·원 양국에서官府용으로 사용하던磁器의 제작 경향을 볼 수 있다.

14세기 후반에 연화당초문의 형태는 〈靑磁象嵌蓮花唐草文「正陵」銘대접〉(이하 〈정릉명대접〉)에서 살펴볼 수 있다도46. 1365년에서 137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릉명대접〉의 연화당초문은 전체적인 형태는 〈'己巳'銘대접〉과 동일하지만 세부 표현에서 당초줄기가 한 줄의 백상감선으로 표현되고 그 주위로 잎들이 흩뿌려지듯이 표현되고 있어서 새로운 표현보다는 간략화·도식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4세기 전후반경에 제작된 〈'己巳'銘대접〉이나 〈정릉명대접〉의 연화문이 흑백상감선으로

<sup>83</sup> 孫瀛洲, 「元卵白釉印花龍八寶盤」, 『文物』 第1期(1963), p.26.

<sup>84</sup> 호림박물관과 日本 寧樂美術館에도 〈'己巳'銘대접〉과 동일한 기형과 문양을 가진 〈靑磁象嵌蓮花唐草文대접〉이 소장되어 있다.



도 47 靑磁象嵌蓮花唐草文大鉢,  
고려 14세기 후반, 입지름 19.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8 靑畫菊文小罐,  
元 景德鎮 14세기 후반, 높이 7.4cm,  
江西景德鎮陶瓷考古研究所

로 표현된 반면에 14세기 말기에 제작된 <청자상감연화당초문대접>의 연화문은 문양면의 반 정도를 흑상감으로 색을 칠한 듯이 표현하였다<sup>도 47</sup>. 花瓣을 반정도만 채우는 표현은 원대 말기인 1360년대 이후에 중국산 토청으로 제작된 청화자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中國江西省 景德鎮市 元代 末期 墓에서 출토된 <청화국화문합>에서 볼 수 있다<sup>도 48</sup>.<sup>85</sup> 그러나 문양면에 색을 칠한 듯한 표현방법은 고려 14세기 말기 상감청자보다 조선초에 제작되는 상감백자의 문양 표현에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문양 표현방법이 조선 초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화당초문은 13세기 후반 상감청자에서 새롭게 보이는 문양으로, 13세기 후반 상감청자의 연화당초문은 원조 관용 자기였던 '추부'명자기와, 14세기 전반경인 <己巳'銘대접>의 연화당초문은 元朝의 祭器로 사용된 <太禧'銘盤>에 시문된 연화당초문과 유사하였다. 연화당초문의 형태는 14세기 중후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4세기 말경에 제작된 상감청자대접에 시문된 연화당초문에서 원대 말기에 제작되는 청화자기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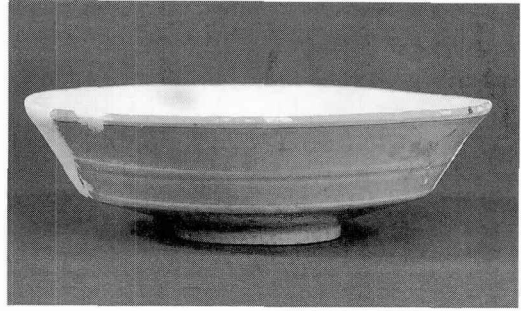
### 5) 돌기문

돌기문은 기물의 외면에 한 줄 또는 두 줄의 돌출된 帶가 둘러진 것이며,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양요소로 원대 용천요 청자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86</sup> 돌기

<sup>85</sup> 白焜, 『景德鎮出土陶瓷』(香港: 香港大學馮平山博物館, 1992), pp.128-129, pl. 164; 葉佩蘭, 「景德鎮製瓷業的新成就」, 『元代瓷器』(北京: 九州圖書出版社, 1998), p.22.



도 49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접시,  
고려 1332년, 호림박물관



도 50 卵白釉印花折腰碗, 元 景德鎮 1324-1352년,  
입지름 11.5cm, 安徽省 歙縣 元代 窖藏 출토

문은 입지름 10-11cm 정도, 높이 4-5cm 정도의 접시에서만 나타나며, 보통 한 줄이나 두 줄의 돌기대가 돌아간다. 돌기문은 '壬申'銘이 상감된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접시>(이하 <壬申'銘접시>)에서 보이며 도 49, 1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에서도 <청자 상감돌기문접시>가 발견되었다.<sup>87</sup>

중국 磁器에서 기물의 외면에 돌기대를 돌리는 것은 원대 龍泉窯 청자나<sup>88</sup> 경덕진 청백자, 난백유자기에서 볼 수 있어서 당시 자기의 동체 외벽에 凸文을 돌리는 장식이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89</sup> 돌기문이 용천요 청자나 난백유자기 등에서 모두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간지명상감청자들이 원조 전용자기로 사용된 난백유자기와 관련되고 있는 점을 볼 때, <壬申'銘접시>의 돌기문도 난백유자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328년에서 1352년 사이에 만들어진 원대 교장이나 경덕진 湖田窯 원대 후기층에서 출토된 <난백유인화 절요완>에서 동체에 가해진 두 줄이나 한 줄의 돌출된 현문을 볼 수 있다 도 50.<sup>90</sup>

<sup>86</sup> 李鍾玟, 앞의 논문, p.17.

<sup>87</sup>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1992), p.289, 도 7.

<sup>88</sup> 朱伯謙, 앞의 논문, pp.25-26. 원대 용천요에서 제작되는 蔗段洗는 동체의 외벽에 凸의 현문이 한 줄 둘러져 있어서, 마치 사탕수수를 묶어 놓은 것 같다는 의미이다. 원대에 성행하다가 明代 初期 이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sup>89</sup> 葉佩蘭, 앞의 책, pp.205-206.

<sup>90</sup> 葉涵壘 外, 「歙縣出土兩批窖藏元瓷珍品」, 『文物』 第5期(1988), p.86; 李輝柄, 앞의 논문, p.90; 楊偉靈, 『中國陶瓷全集』 元(下), pl.110, p.251.

## V. 元代 磁器의 영향에 따른 象嵌靑磁의 시기별 특징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시기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麗·元 교류의 초기인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상감청자의 문양에서 宋代 磁器와 함께 元代 磁器와의 관련성이 보이는 점이다. 둘째,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원대 자기가 상감청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셋째, 1352년 이후인 14세기 후반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서는 前代 양식이 퇴화되거나 간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다시 麗末·鮮初 상감청자[상감분청사기]의 龍文·海水魚文·魚藻文 등에서 元代 至正樣式 청화 자기의 영향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元朝가 1368년에 망했지만 원대 청화자기의 영향이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향은 고려 후기 상감청자가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시작기, 확산기, 지속기로 나누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元代 磁器 양식이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상감청자에 나타나는 변화를 앞서 살펴본 麗·元 양국의 시기적인 교류 상황이나 정치적인 정황의 변화, 窯業 상황 등과 종합하여 고려 후기 상감청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이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작기 : 13세기 4/4분기-14세기 초

공식적인 麗·元 관계는 고려가 원에 和평을 청한 1259년 이후부터 시작되지만,<sup>91</sup> 고려 상감청자에 원대 자기의 영향이 보이는 시작기는 원이 경덕진에 浮梁磁局을 설치하는 1278년에서 충렬왕(1275-1308)의 재위시기까지를 기준으로 편년하였다.

13세기 후반에 제작되는 <청자상감용봉문편병>의 용문과 봉황문, <청자상감쌍어국화문대접편>에서 圓圈 안에 雙魚를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한 쌍어문은 송대 定窯 자기와 유사하였으며, 이미 전시기 상감청자에서도 사용되던 문양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92</sup>. 그러나 <청자상감용봉문편병>에서 용과 봉을 함께 구성하는 방법이나 연화당초문의 형태,

<sup>91</sup> 張東翼, 「麗·元의 政治的 關係」, 앞의 책(1994), p.110.

〈청자양각쌍어문접시〉에서 등을 맞댄 쌍어문의 형태는 前代 상감청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으며, 원대 자기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도<sup>9,34</sup>. 13세기 후반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는 송대 자기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일부 기형이나 문양에서는 前代와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13세기 후반에 원의 요업 상황이나 元朝의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13세기 후기에 경덕진 일대 요지에서 발견되는 원대 자기도 宋代의 磁器樣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sup>92</sup> 元朝가 강남지역을 장악한 직후인 13세기 4/4분기경에는 원의 자기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았으며,<sup>93</sup> 이러한 상황은 1289년에 원조가 고려정부에 청자를 貢物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기록이나 安南(베트남)에도 자기를 공납할 것을 요구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94</sup> 元朝의 분위기도 세조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상당기간 동안 祭器 등의 文物은 宋代의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었다. 元朝는 中統年間(1260-1263) 이래로 1320년까지 祭器는 宋代 제기를 사용하였다.<sup>95</sup> 『고려사』 기록 중에는 충렬왕 5년(1279, 至元16)에 원 세조가 이미 망한 송나라의 봉병을 충렬왕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13세기 후반에는 元朝가 南宋의 기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96</sup>

그러나 13세기 후반에는 이미 胡瓶, 畫金磁器, 金畫甕器과 같이 원대 몽고족과 관련되거나 元 황실의 기호에 따라서 제작된 그릇들이 元朝에 공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제작되는 일부 상감청자에서 보이는 前代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은 원대 器物이나 磁器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13세기 후반경은 고려 상감청자에 송대 자기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일부 문양 표현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sup>92</sup> 劉新園·白焜, 「景德鎮湖田窯考察紀要」, 『文物』 11期(1980), p.44.

<sup>93</sup> 劉新園, 앞의 논문(1982), p.25. 1278년부터 1295년경에 元朝의 관할하에 경덕진에서 官府用 자기를 제작하던 官匠의 수를 약 16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sup>94</sup> 劉新園, 앞의 논문(1982), pp.24-25; 『元史』 卷96 外夷二 「三年九月, 以西錦三, 金熟錦六賜之, 復降詔曰, 卿既委質爲臣, 其自中統四年爲始, 每三年一貢, 可選儒士·醫人及通陰陽卜筮·諸色人匠各三人, 及蘇合油·光香·金·銀·硃砂·沉香·檀香·犀角·玳瑁·珍珠·象牙·綿·白磁蓋等物同至。」

<sup>95</sup> 劉新園, 「明代洪武朝における用瓷と景德鎮御器廠設置年代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陶磁編』 (東京: 平凡社, 1985), p.130; 『元史』 卷七十四 志第二十五 祭祀三 宗廟上 「祭器… 中統以來, 雜金·宋祭器而用之. 至治初, 始造新器於江浙行省, 其舊器悉置几閣。」

<sup>96</sup> 『高麗史』 世家 29 忠烈王 己卯 5年 正月 「辛亥, 帝, 賜王亡宋寶器·鳳瓶·玉笛等九十事, 翼日, 又賜王及從臣彩帛。」

표 1 高麗後期 干支銘象嵌青磁와 元代 卵白釉磁器

제작시기	‘己巳’·‘壬申’銘 상감청자	원대 자기	제작시기
1329	〈青磁象嵌蓮花唐草文‘己巳’銘대접〉(도44)	〈卵白釉印花龍文‘太禧’銘盤〉(도45)	1329-1340
1332	〈青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도3)	〈卵白釉描金高足杯〉(도4)	1324-1352
1332	〈青磁象嵌雲鳳文‘壬申’銘대접〉(도31)	〈卵白釉印花鳳凰文‘天順年造’銘盤〉(도29)	1328
1332	〈青磁象嵌雲鶴文‘壬申’銘접시〉(도49)	〈卵白釉印花折腰碗〉(도50)	1328-1352

## 2. 확산기 : 14세기 전반

14세기 전반기는 상감청자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확산기는 원의 制度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충선왕대(1309-1313)부터 원의 窯業이 중지되고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인 1351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서 원대 용천요 청자나 경덕진 靑白磁, 卵白釉磁, 靑畫磁器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14세기 용천요 청자의 특징인 立式 용문이나 퇴첩기법의 쌍어문이 상감청자에도 보이고 있다<sup>도11, 36</sup>. 중국 安徽省 滁縣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용문호〉가 1324년경에 원대 경덕진에서 제작된 〈청백자용문호〉와 문양 구성·형태가 유사하여서, 14세기 전반경에는 이미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상감청자들이 제작되어 중국으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도13, 14</sup>.

상감청자의 구연외반식대접·고족배 기형과 용문·봉황문·연화당초문·돌기문 등에서 원대 1320-1330년대에 활발하게 제작되어 元朝의 專用磁器로 사용된 난백유자기의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상감청자에 14세기 2/4분기에 제작된 난백유자기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현상은 1325년 이후에 원의 관용자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官匠들이 商品磁器를 제작하여 팔기 시작하는 등의 元代 窯業이 성행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己巳’나 ‘壬申’銘과 같은 공납용 상감청자에 元朝의 전용자기였던 ‘天順年造’나 ‘太禧’銘 난백유자기의 영향이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己巳’나 ‘壬申’銘 상감청자의 제작시기도 1329년과 1332년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있다<sup>표1</sup>.

이 시기에 상감청자는 원대 난백유자기와 함께 청화자기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14세기에 제작된 〈상감청자용문매병〉의 용문이 景德鎮 珠山에서 출토되어 1329년에서 1340년 사이에 원 황실용으로 제작된 〈청화용문편〉에 시문된 용문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용문 출현은 1329년에서 1340년경에 제작되는 원대 청화자기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형

태이기 때문에 상감청자 매병에 시문된 용문이 원대 청화자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살필 수 있었다도<sup>18, 19, 20, 21</sup>.

이렇게 14세기 전반경의 상감청자에 다양한 원대 자기의 영향이 시간차가 거의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충선왕대의 對元 정책이 수정되어 원의 문물이 前代보다 큰 폭으로 고려에 유입되었고, 麗·元 도자 交流가 민간무역으로까지 확대된 점, 양국의 활발한 요업 활동으로 인한 磁器의 대량생산과 유통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 3. 지속기 : 14세기 후반-15세기 1/4분기

지속기는 원의 요업이 중지되어 자기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1352년부터 명 황실 용 磁器가 처음으로 전해지는 세종 10년(1428)경을 기준으로 편년하였다.<sup>97</sup> 이 시기는 1368년에 원이 멸망하였지만 원대 청화자기의 영향이 고려말·조선초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14세기 전반 상감청자에서 원대 자기와 관련된 새로운 기형과 문양 표현을 볼 수 있었지만 14세기 후반 상감청자에서는 새로운 기형이나 문양 표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정릉·명대접>의 연화당초문, 도리포에서 인양된 <청자상감쌍어문접시>의 쌍어문, 사당리 10호묘지에서 발견된 <靑磁象嵌돌기문접시>의 돌기문 등은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상감청자의 문양이 간략화되거나 퇴화된 형태이다<sup>도37, 46</sup>. 그러나 麗末·鮮初에 제작되는 <분청사기상감용문병>, <청자상감어조문접시편>, <분청사기상감해수어문병>에서 원대 1341년에서 1351년 경에 제작되는 至正樣式 청화자기의 전형적인 龍文, 魚藻文, 海水魚文과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sup>도22, 38, 40</sup>.

원의 요업은 강남 지역의 잦은 전란으로 1352년경부터 중지되어 자기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368년에 원이 멸망하고 명조가 건국되면서 시행된 해금정책으로 對中國 교류가 단절되었고 1384년 이후에는 對明 交流가 재개되지만 무역로가 海路에서 陸路에서 바뀌면서 중국 강남지역에서 제작된 자기들이 고려에 유입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에서도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던 강진 磁器所가 1370년경을 전후하여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sup>97</sup> 『世宗實錄』 卷41 世宗 10年 7월 己巳條 「… 明使尹鳳, 白磁青花大鐘獻上, 明 宣德帝 白磁青花大盤五個·小盤五個下賜…」

그러므로 14세기 후반에는 전대의 기형과 문양이 간략화·퇴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麗末·鮮初에 제작되는 일부 상감청자에서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의 영향이 보이는 것은 당시 元·明 교체기라는 중국 내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려의 對元·對明 교류가 단절·재개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초에는 前朝인 고려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sup>98</sup> 실제 조선 초 1400년에서 1420년 사이에 제작되어 사용된 〈靑磁象嵌蓮唐草文 '恭安'銘대접〉에는 1365년에서 1374년에 제작된 〈正陵銘대접〉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sup>99</sup> 조선 초에 제작되는 일부 상감분청사가 고려조에서 사용하고 있던 元代 磁器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VI. 맺음말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경을 거쳐 15세기 초기까지 제작된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 시기마다 전개되는 고려와 원의 외교정책, 정치적 상황, 窯業이나 무역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러·원 양국의 교류사적 배경과 도자 생산·유통·소비 등의 제반 상황과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을 종합하여 元代 磁器의 영향이 수용되는 과정을 시작기, 확산기, 지속기로 編年하였다.

시작기는 麗·元 관계 초기인 13세기 4/4분기경으로, 이 시기 상감청자에는 원대 자기의 영향보다는 송대 자기나 前代 상감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등을 닮은 형태의 쌍어문이나 연화당초문과 같은 일부 문양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이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왕실이나 관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러·원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문헌기록에서 원대 몽고족과 관련된 그릇인 胡瓶이나 원 황실의 기호에 맞춘 畵金磁器 등이 원의 貢物로 제작되고 있어서 원대 문물의 영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산기는 14세기 전반경으로, 원대 자기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龍泉窯 靑磁, 景德鎮 靑白磁, 卵白釉磁器, 靑畵磁器와 같은 다양한 원대 자기의 영향

<sup>98</sup> 『太祖實錄』卷一 元年 壬申 7月 「…予府循興情勉卽王位,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一依前朝故事。」

<sup>99</sup> 姜敬淑, 「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 試考—廣州陶水里 粉靑沙器窯址 大접破片을 中心으로—」, 『梨大史苑』第20輯(1983), pp.3-5.

이 보인다. 14세기 전반경은 충선왕대(1309-1313) 對元 정책이 수정되면서 원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고려와 원의 도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의 교류가 대폭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상감청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己巳'나 '壬申'銘 상감청자의 일부 기형과 문양이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天順年造'銘, '樞府'銘 '太禧'銘 磁器와 같은 元朝의 官用磁器와 관련되고 있어서 己巳와 壬申의 시기를 1329년과 1332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원대 자기의 영향이 수용되는 시기적인 차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형이나 문양 구성 등에서는 주로 용문이나 봉황문, 연화당초문, 어문 등과 같은 주문양에서만 원대 자기의 영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셋째, 퇴첩, 인화, 청화, 음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원대 자기 문양의 특징을 모두 상감기법으로 재해석하여 시문하고 있는 점에서 고려 상감청자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기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1/4분기경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원대 자기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고려말·조선초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 원대 1341년에서 1351년 사이에 제작되는 至正樣式 청화자기의 영향이 다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352년에서 1360년경까지 계속된 원의 窯業 중지, 1368년 원의 멸망, 명과의 외교 단절, 강진 자기소의 해체 등 당시 복잡했던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새로운 양식의 明代 靑畫磁器가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에 이미 유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던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를 모델로 일부 상감청자[상감분청사기]를 제작하여서 청화자기에 대한 욕구를 대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상감분청사기는 문양 구성이나 세부 문양 표현까지 원대 청화자기의 문양을 수용하고 있어서, 15세기 초 조선사회에서 청화자기에 대한 욕구를 짐작하게 한다.

\* 주제어(key words) — 元代 磁器(Yuan Dynasty Wares), 高麗後期 象嵌靑磁(the Inlaid Celadons in the Late Goryeo) 龍泉窯 靑磁(Longquan Kiln Celadons), 卵白釉磁器(a Porcelain with Luanbai Glaze), 干支銘象嵌靑磁(the Inlaid Celadons with Inscription Sexagenary Cycle), 至正樣式 靑畫磁器(Jijeong Style Blue-white Porcelain)

▣ 투고일 2005년 11월 7일 | 심사일 2006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6년 2월 10일 ▣

## 국문초록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경을 거쳐 15세기 초기까지 제작된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 시기마다 전개되는 고려와 원의 외교정책, 정치적 상황, 窯業이나 무역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었다. 麗·元간 교류의 시기적 특징과 배경, 도자 생산·유통·소비 등의 제반 상황, 상감청자의 기형과 문양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을 종합하여 상감청자에 元代 磁器의 영향이 수용되는 과정을 시작기, 확산기, 지속기로 編年하였다.

시작기는 麗·元 관계 초기인 13세기 4/4분기경으로, 이 시기 상감청자에는 원대 자기의 영향보다는 송대 자기나 前時期 상감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등을 맞댄 형태의 쌍어문이나 연화당초문과 같은 일부 문양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이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왕실이나 관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麗·元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문헌기록에서 원대 몽고족과 관련된 그릇인 胡瓶이나 원 황실의 기호에 맞춘 畵金磁器 등이 원의 貢物로 제작되고 있어서 원대 문물의 영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산기는 14세기 전반경으로, 원대 자기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용천요 청자, 경덕진 청백자, 난백유자기, 청화자기 등 다양한 품종의 원대 자기들의 영향이 보인다. 충선왕대 對元 정책이 수정되면서 원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고려와 원의 도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의 교류가 대폭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원대 자기의 영향을 받은 상감청자에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己巳나 壬申銘 상감청자의 일부 기형과 문양이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天順年造銘, 樞府銘 太喜銘 磁器와 같은 元朝의 官用磁器와 관련되고 있어서 己巳와 壬申의 제작시기를 1329년과 1332년으로 추정해 보았다. 또한 간지명 상감청자가 元朝의 전용자기로 사용된 난백유자기의 기형과 문양에서 관련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편년 자료들과의 비교로 상감청자에 원대 자기의 영향이 수용되는 시기적인 차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대 자기의 영향을 수용하는 방법은 기형이나 문양구성 등에서 상감청자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주로 용문이나 봉황문, 연화당초문, 어문 등과 같은 주문양에서만 원대 자기의 영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셋째, 퇴첩, 인화, 청화, 음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원대 자기 문양의 양식적인 특징을 모두 상감기법으로 재해석하여 시문하고 있는 점에서 고려 상감청자만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기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1/4분기경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4세기 중반 이후에

는 원대 자기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되는 상감청자에 원대 1341년에서 1351년 사이에 제작되는 至正樣式 청화자기의 영향이 다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352년에서 1360년경까지 계속된 원의 窯業 중지, 1368년 원의 멸망, 명과의 외교 단절, 강진 자기소의 해체 등 당시 복잡했던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새로운 양식의 明代 靑畵磁器가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에 이미 유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던 원대 지정양식 청화자기를 모델로 일부 상감청자(상감분청사기)를 제작하여서 청화자기에 대한 욕구를 대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점은 14세기 전반경과 15세기 초에는 모두 원대 청화자기를 모델로 상감청자가 제작되지만 14세기 상감청자는 원대 자기의 일부 주문양만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15세기 초에 제작되는 상감분청사기에서는 문양구성이나 세부 문양표현까지 원대 청화자기의 문양을 수용하고 있어서, 15세기 초 조선사회에서 청화자기에 대한 욕구를 짐작하게 한다.

본 논문은 고려 13세기 후기에서 14세기를 거쳐 15세기 초기까지 긴박하게 변화하는 對元·對明 관계와 도자 교류의 측면에서 상감청자를 고찰하였다. 고려후기 상감청자는 前代 상감청자의 쇠퇴가 아니라 당시 元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자문화에서 원대 자기의 영향을 수용하여 새로운 기형과 문양이 생겨났으며, 원대 자기의 영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고려후기 상감청자의 편년과 干支銘 象嵌靑磁의 제작시기 등 여러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ABSTRACT

# Influence of Yuan Dynasty Wares on the Inlaid Celadons of the Late Goryeo

**Kim Yunjeong**

This thesis studies the influence of Yuan (元) dynasty wares shown in forms and designs of the inlaid celadons in Goryeo (高麗) dynasty made from the late 13th century and the early 14th century to the early 15th century, and discovered that it was closely related to circumstances of both countries in the corresponding periods such as diplomatic policies, political conditions, trade conditions and conditions of the ceramic industry.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s in exchanges and overall circumstances including ceramic wares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oth countries, I divided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Yuan dynasty wares influence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They are the starting period, the spreading period and the maintaining period.

The starting period was the last quarter of the 13th century when Goryeo and Yuan started to build relation, and the inlaid celadons in this period was influenced more by Song (宋) dynasty wares or the previous inlaid celadons rather than by Yuan dynasty wares, but we can witness the influence of Yuan dynasty wares in some patterns such as a lotus scroll design or a couple of fishes design with a back-to-back pattern. In this period, the exchanges between both countries were only limited to those of the royal family or bureaucrat, but I could find out Yuan culture and institutions started to influence Goryeo in that *hobyong* (胡瓶, a vessel related to Mongolia of Yuan) and the celadon with overglaze gilt decoration (畫金磁器) which suited imperial family of

Yuan were made as offerings to Yuan.

The spreading period is the early 14th century, and we can witness the influence of Yuan most in this period. The influence of various Yuan dynasty wares shown in this period includes that of a Longquan kiln celadons (龍泉窯 青磁), a Jingdezhen *qingbai* wares (景德鎮 青白磁), a porcelain with *luanbai* glaze (卵白釉磁器), a blue-white porcelain (青畫磁器). As King Chungseon (忠宣王, 1309-1313) changed diplomatic policies toward Yuan, Goryeo started to actively accept institutions and culture of Yuan Dynasty,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remarkably increased, as we can see in the increase in celadon production volume of two n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laid celadons influenced by Yuan dynasty wares are as follows. First, some form and design of the inlaid celadons with the inscription *gisa* (己巳) or *imsin* (壬申) were related to celadons made in the early 14th century and used in the palace of Yuan such as wares with the inscription *Tianshun nian zhaos* (天順年造), *Shufu* (樞府) and *Taixi* (太禧). Therefore, I estimated the period *gisa* (己巳) and *imsin* (壬申) were made as 1329 and 1332. The fact that the inlaid celadons with inscription *ganji* (sexagenary cycle) has some relations with porcelain with *luanbai* glaze which was used exclusively for Yuan's imperial court in its form and design is also noticeable. Also, there seemed to be no difference in time in accepting the influence of Yuan dynasty wares in the inlaid celadons in chronological comparison. Second, in accepting the Yuan dynasty wares influence, the tradition of the inlaid celadons in a form or a composition of design were well kept but the Yuan dynasty wares influence can be seen only in main design such as a dragon design, a phoenix design, lotus scroll design and fish design. Third, I could reaffirm the uniqueness of the inlaid celadons in that characteristics of Yuan dynasty wares expressed in various techniques such as applied ornament, moulded relief, cobalt blue painting and intaglio were all reinterpreted as techniques of inlay and styled.

The maintaining period is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first quarter of the 15th century. We cannot find the Yuan dynasty wares influence in the inlaid celadons made since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but the influence of Zhizheng style (至正樣式) blue-white porcelain, made from 1341 to 1351 in Yuan, was shown again in the inlaid celadons mad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Joseon (朝鮮) Dynasty. I think this is because blue and white porcelain of new styles of the Ming Dynasty failed to be introduced in Goryeo due to complicated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Goryeo such as the decline in the ceramic industry of Yuan

from 1352 to 1360, the fall of the Yuan Dynasty in 1368, diplomatic cessation with the Ming Dynasty and fall of Gangjin *jagiso* (康津 磁器所). Therefore, the desire for blue and white porcelain must be satisfied by some the inlaid celadons(the inlaid Buncheong wares (象嵌粉青沙器)) made after Jijeong style's blue-white porcelain of Yuan which was already introduced and used in Goryeo.

This paper examined the inlaid celadons in terms of exchanges in ceramic and diplomatic relations of Goryeo with Yuan and Ming which had been rapidly changed from the late 13th century to the early 15th century. The inlaid celadons in the late Goryeo was not in the decline from the previous inlaid celadons, but should be evaluated its new form and design by accepting the influence of Yuan dynasty wares in the new atmosphere in ceramic culture Yuan led. It also deserves to be highly recognized as accepting the Yuan dynasty wares influence subjectively. I think this paper is especially meaningful in providing new perspectives on various issues such as chronology of the inlaid celadons in the late Goryeo and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inlaid celadons with the inscription sexagenary cycle.